MAGAZINE

Namhae & Europe

남해에서 유럽을 만나다 「남해 & 유럽」

GERMANY
FRANCE
ITALY
HUNGARY
POLAND
UNITED KINGDOM
SWITZERLAND
FINLAND
NETHERLANDS
GREECE
SPAIN
LUXEMBOURG

Hei
minä rakastan sinua

Szia!
Szeretlek

γεια σας
σ'αγαπώ

Bonjour
Je t'aime

Moien
ech hunn dech gär

¡Hola!
te quiero

Grüezi
Ich Lieb Di

어서오시다!
사랑한데이!

salve!
Ti amo

Сайн байна уу
Би танд хайртай

halo
Aku cinta kamu

hallo
Ik hou van jou

Guten Tag
Ich liebe dich

Hi, How are you?
You are the apple of my eye.

Hi, Are you alright?
I can’t live without you.

Kumusta
Mahal kita

Dzień dobry
Kocham cię.

Content

남해에서 유럽을 만나다
「남해 & 유럽」

06 한국 속 작은 유럽, 보물섬 남해
08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소개 및 대사 인사말
10 한국유럽학회 소개 및 회장 인사말
11 외교부 유럽국장 인사말

GERMANY

12 독일마을 맥주축제
13 독일마을과 독일 로만틱가도의 로텐부르크
14 주한독일문화원 소개
15 주한독일문화원 정보도서관부 부장 인터뷰
16 (로컬 피플)완벽한 인생 브루어리 정학재 대표

FRANCE

18 프랑스한인회와 나매지엥 국제교류
19 섬이정원과 프랑스 지베르니의 모네정원
20 주한프랑스문화원 소개
21 주한프랑스문화원장 인터뷰
22 (로컬 피플)섬이정원 차명호 대표

ITALY

24 다랭이마을 달빛걷기
25 다랭이마을과 이탈리아 아말피해안의 포지타노
26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소개
27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인터뷰
30 (로컬 피플)카페 톨 송순영 대표

HUNGARY(With 비세그라드그룹)

32 V4 남해로의 소풍
33 이순신순국공원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
창선고사리밭길과 폴란드 자코파네의 타트라 산맥
34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소개
35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장 인터뷰
38 (로컬 피플)남해군 관광문화재단 김아름 매니저

UNITED KINGDOM

40 토피아랜드와 영국 켄달의 레벤스홀
41 주한영국문화원 소개
42 주한영국문화원장 인터뷰

OTHER EUROPE

44 남해양떼목장과 스위스 인터라켄
편백자연휴양림과 핀란드 에스포
45 원예예술촌과 네덜란드 리세의 쾨켄호프
빛담촌과 그리스 산토리니
46 화계전원마을과 스페인 출릴라
동화마을 남치와 룩셈부르크 비안덴
47 (비록 유럽은 아니지만)미국마을과 미국 몬테발로
(유럽 감성과 남해 전통의 조화)꽃섬 유니크베뉴
48 (보물섬으로 떠나는 해외여행)남해여권스탬프 투어
50 (상상해본다)노량에 색을 더하다
51 (상상해본다)골목길, 마을, 그리고 문화원
52 (코리아넷 남해 취재)보물섬 남해
(감성관광 가이드 북 제작)지금 여기 애(愛), 남해

남해 그리고 유럽

54 음식
56 축제
58 문학
60 박물관&미술관
62 랜드마크
64 영화&드라마
68 맥주
70 꽃
72 서점&도서관
74 핫플레이스

76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

SPECIAL STORY

84 유럽현지에서 바라본 남해
86 남해방문기
87 유럽의 날 기념행사 참관기

88 **에필로그**

TREASURE ISLAND NAMHAE

한국 속 작은 유럽
보물섬 남해

남해군은 한반도 남해 연안의 중앙에 위치한 남해도와 창선도 두 큰 섬을 비롯한 유인도 5개와 무인도 7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4만 2천 명이다.

본섬인 남해도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옹기종기 모인 섬, 크고 작은 산, 아름다운 해안선 등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남해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다양한 매력의 보물 같은 관광명소들이 많아 '보물섬 남해'로 불린다.

보물섬 남해는 섬 전체가 유럽을 연상하게 하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유럽에 와 있는 착각이 든다. 독일마을, 다랭이마을 등 유명 관광명소 외에도 곳곳에 유럽풍의 카페와 펜션 등이 즐비하고, 주민들의 삶에도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여행하기 딱 좋은 기후조건까지도 유럽과 비슷하다.

Europe

Namhae

GREETING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소개 및 대사 인사말

남해의 독일 마을,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를 닮은 다랭이마을, 프랑스 지베르니를 연상시키는 섬이정원은 다양한 유럽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남해군민 그리고 남해를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이 아름다운 한국 최남단 지역인 남해를 소개하는 잡지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대표하여 서면으로라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많은 국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유럽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유럽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럽 문화의 진가를 인정해준 남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해의 독일마을,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를 닮은 다랭이마을, 프랑스 지베르니를 연상시키는 섬이정원은 다양한 유럽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유럽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인 '다양성 내 통일성(unity in diversity)'으로, 한국이 유럽에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한국에 줄 것이 많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유럽은 한국인 휴가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였고, 한국은 유럽 여행객에게 떠오르는 여행지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유럽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107%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은 108% 증가했습니다.
유럽과 한국 사이의 교류는 관광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교육, 문화, 연구,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EU가 지원하는 에라스무스(Erasmus)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많은 젊은 한국 학생이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원의 유동성을 통한 한-EU 협력을 후원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합동 프로젝트와 대회를 통해 한국과 유럽의 예술, 음악, 영화, 건축 분야 인재의 교류가 심화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과 EU의 관계는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과 공동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국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해는 한국에 근거지를 둔 유럽문화원 네트워크인 주한 유럽연합국가문화원(EUNIC,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of Culture)과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도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남해와 유럽의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축하 드리며, 계속해서 유럽과 한국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멘텀과 상호 이익을 계속 유지해봅시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에 관하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는 전 세계에 있는 142개의 EU 외교 공관 중 하나이다. EU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통해 대표되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다. 한국과 EU는 1963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이는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EU는 한국의 3대 상품 교역국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으며, 한국은 EU의 8대 교역국으로 남아 있다. 한국은 EU가 처음으로 정치, 무역, 안보 협정, 즉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위기관리 기본참여 협정(Crisis Management and Participation Agreement)을 포함한 3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EU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국내외 노력을 열렬히 지지해왔다.

GREETING

한국유럽학회 소개 및 회장 인사말

방청록

한국유럽학회 회장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섬 남해에서 한국 속 작은 유럽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유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방청록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섬 남해에서 한국 속 작은 유럽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유럽은 오랜 역사와 함께 풍부한 사회·문화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풍광, 오랜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자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모습을 통해 유럽의 과거 역사와 삶의 양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고 발견하고자 유럽지역을 방문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 속 작은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 소중한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남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테마를 살린 관광 명소들이 마련되어 말 그대로 유럽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이 보유한 유럽 테마의 여러 명소를 통하여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정취를 누리고 경험하는 즐겁고도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유럽학회 소개

한국유럽학회는 1994년 설립되어 유럽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학회로서 유럽에 정통한 학계 인사,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역사, 과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학계와의 교류, 정부 정책 자문 등에 힘쓰고 있다.

GREETING

외교부 유럽국장 인사말

김정하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국장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축하드리며 남해군의 열정적인 민간외교가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와 유럽은 대륙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까운 파트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 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역·인적 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실질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고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유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해에도 유럽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남해의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 이탈리아 포지타노를 닮은 다랭이마을, 프랑스 지베르니가 연상되는 섬이정원, 스위스 알프스 초원 같은 양떼목장 등 다양한 명소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해군은 이러한 남해의 명소에서 유럽 각국의 문화원들과 유럽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축하드리며 남해군의 열정적인 민간외교가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ERMANY

독일마을 맥주축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정착촌,
남해독일마을에서 개최되는
이국적인 맥주파티의 향연속으로!

기간 매년 10월 경
장소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일원

남해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맥주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

2010년 가을에 첫선을 보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2020년 2월에는 경남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오크통과 마차, 앞치마마저 예쁘게 느껴지는 유럽풍의 전통의상과 곳곳에서 구워대는 먹음직스러운 소시지와 독일식 족발인 학센, 깊고 진한 맛의 독일정통맥주로 잔을 부딪치는 사람들. 호기롭게 건배하며 음악 소리에 맞춰 걷다가 돌아보면 보이는 건 초록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주황색 지붕의 이색적인 독일식 주택. 여기가 바로 여권 없이도 누구나 올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남해 속 또 다른 독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축제를 파독 광부 · 간호사의 정착지에서 여는 축제이기에 독일마을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이 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매년 10월, 가을 낭만을 한껏 누릴 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맥주 한잔을 두고 즐기는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마을주민과 여행객이 한데 어우러진 '환영 퍼레이드'로 축제의 흥겨운 시작을 알리고, '옥토버 나이트 파티'로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의 밤 추억을 만들어간다.
웃음이 만발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 "프로스트(Prost, 건배)"를 외치던 주한독일대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듯 하다. 재즈와 어쿠스틱 공연이 있는 옥토버 낭만콘서트, 독일 전통의상 체험과 맥주잔 많이 들고 달리기, 오크통 수레 끌고 달리기, 맥주잔 높이 쌓기 등 즐거운 한때로 향하는 다양한 참여와 함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삶의 축제다.

독일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동포들이 이젠 독일마을을 찾는 방문객들과 정서를 교감하며, 독일문화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다. 독일마을과는 담장조차 없는 이웃인 원예예술촌과 초록 풍경이 펼쳐지는 물건방조어부림숲, 동화 같은 동심이 머무는 해오름예술촌과 360도 원통형 전망대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물미해안전망대 등이 모두 지척이라 머무는 여행으로 이어가기 좋은 최적의 곳이다.
2021년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온라인 국제이벤트로 전환하여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멈춰설 위기에 있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온라인 국제이벤트로 전환하여 축제의 명성과 이야기를 이어갔다. 독일마을과 맥주를 소재로 진행되는 축제의 특성상 코로나 감염 방지에 취약함에 따라 지난 7월 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 매력 발산 국제이벤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중심으로 되살려냈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네이버 제페토에 독일마을 가상공간을 구축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축제 행사를 온라인 가상공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남도와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후원으로 진행되는 국제이벤트에는 주한독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문가 포럼인 라운드 테이블과 문화교류 행사인 갈라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가치 있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메타버스 온라인 개막식이 네이버 제페토에서 진행되었으며, 메타버스로 구현된 독일마을은 광장, 마을 거리, 시계탑 전망대를 비롯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만나볼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해 독일마을에 방문하지 못했던 관광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다.

2022년 10월 다가올 제10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실질적으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첫해로 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 여행

독일마을

독일 교포들이 실제 독일에서 거주하던 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속 작은 독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3년 완공 이후 독일마을의 하얀 벽과 오렌지빛 지붕은 남해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독일식 식당, 독일 맥줏집, 독일식 광장 등이 독일 로텐부르크의 거리를 떠올리게 한다. 매년 10월경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다.

독일 로텐부르크
Rothenburg

로텐부르크 오프데어 타우버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퓌센까지 이르는 '로만틱 가도'에 속하는 소도시이다. 독일에는 로텐부르크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아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주변 강을 도시명 뒤에 붙여 쓴다. 그중 로텐부르크 오프데어 타우버는 '타우버강 위 붉은 성'이라는 뜻이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중세 성곽과 성문이 옛날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어 마치 중세의 시간에 멈춰있는 듯한 곳이다.

GERMAN CULTURAL CENTER IN KOREA

주한독일문화원

소월길이라고도 불리는 남산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인스티튜트(Goethe-Institut)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독일문화원의 이름은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의 이름을 딴 것이다. 남산 순환로에서 보면 독일문화원은 조그만 단층 건물이다. 그러나 아래로 6개 층이 더 있다.

문화원 입구를 들어가면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도서관이 있다. 독일문화원은 도서관을 통해 독일의 문화와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만 2천여 권의 책과 3천여 종의 시청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지하에는 독일어를 가르치는 강의실들이 있다. 초급(A1)부터 고급(C2) 단계까지의 모든 단계별 일반강좌, 독일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 준비강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어린이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다. 독일어 강좌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4,0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
지하를 좀 더 둘러보면 2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강당인 전시음악당이 있다. 이곳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독일 예술가 초청 공연, 전시회 개최 등 각종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괴테인스티튜트는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해외에서 독일어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국제 문화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주한독일문화원은 1968년에 설립되어 한독 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일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문화협력을 장려하며 독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INTERVIEW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머무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풍부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아 벨라피

Andrea Bélafi

주한독일문화원 정보도서관부 부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드레아 벨라피(Andrea Bélafi)입니다. 저는 정보도서관부 부장입니다.

· 주한독일문화원의 배경과 주요 목표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우리 주요 목표는 독일의 언어, 문화, 역사, 일상생활에 관한 실제 정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교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초급 수준 학생, 고급 수준 학생, 특정 필요성이 있는 학생에게 다른 시험을 통해 수료하는 독일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수천 개의 전자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도서관(Onleihe)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목표와 서비스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 링크(https://www.goethe.de/ins/kr/ko/uun/auf.html)에 접속하십시오.

·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들에서 근무하셨는지요?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지만,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근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느낌이나 문화적 특성은?
내가 가본 다른 모든 나라처럼 새로운 경험입니다. 저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한국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을 잘 받았고, 야심이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을 접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감명받고 있습니다.

·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머무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풍부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 독일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딱 한 곳을 추천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우선 저는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 갈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자연과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 속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지? 남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과 외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독일마을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럽적인 관광명소들에 관하여 모두 들었습니다.

· 한국속 독일로 불리는 독일마을을 아시는지요?
아직 독일마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의 역사에 관하여 이미 배웠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독일과 남해의 문화교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은 남해와 접촉하고 있고 끊임없이 생각을 교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독일에 관한 실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기쁩니다.

· 문화원에 근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정보도서관부 부장으로서 저는 한국의 유사 기관과의 교제를 심화하고 독일과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관한 정보를 더 다양한 청중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 독일과 독일의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독일은 다양한 풍경, 전통, 관습, 문화, 문화 활동이 있는 나라이며 다양성, 역사, 혁신의 땅입니다.

· 마지막으로, 독일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직접 또는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나 다른 디지털 활동을 통해 독일문화원에 방문하시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십시오.

NAMHAE LOCAL PEOPLE

독일마을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대표 **정학재**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생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맥주 한잔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여유가 우리 인생을 더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이다.

남해에서 맥주를 만들기 전에는 원래 독일 맥주를 수입하고 유통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부터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맥주를 유통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독일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맥주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지만, 대부분의 맥주가 다른 지역에서도 맛 볼 수 있는 수입 맥주들이고, 정작 남해에서 생산하는 자체 맥주 브랜드는 없어서 안타까웠다. 남해를 방문하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남해의 스토리와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맥주축제의 원조인 독일마을을 맥주축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맥주 유통 경험에 양조 전문가, 비어, 소믈리에, 펍 전문가의 역량을 합쳐 완벽한 인생을 만들게 되었다.

독일마을은 남해에서 내가 가장 애정하는 곳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은퇴 후 정착한 마을이다. 그 당시 힘든 노동으로 모은 월급을 고국으로 보내 외화벌이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독일에서 직접 수입해온 자재들로 독일식 건물을 지었다.

독일마을은 독일의 모습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남해 속 작은 독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점차 잊혀가는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완벽한 인생이 단순히 맥주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이 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는, '쉼'이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남해 로컬 푸드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와 맥주를 즐기며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독일마을 속 작은 남해 같은 공간이다.

FRANCE

남해에 프랑스 더하기!

나매지엥 국제교류

나매지엥 국제교류

프랑스 한인회 및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 남해 방문 및 기념행사,
팸투어 진행
프랑스주간 행사 실시
(어린왕자 특별전시 등)

기간 2022년 9~10월 예정
장소 남해군 일원

2020년 12월 11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프랑스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송안식 회장이 당선되었다.
임기 2년 동안 프랑스 한인 3만 여명을 대표하게 된 송안식 회장은 남해군 출신 향우로, 프랑스군 외인부대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1996년 외인부대에 지원했다.
그는 "모험심이 넘치던 시기였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싶어서 외인부대에 지원했다"고 했다.

송회장은 공수연대 산악중대 소속으로 아프리카 차드, 콩고, 가봉, 보스니아 내전에 투입됐다. 고공 낙하 훈련만 300번 가까이 수행했다. 그는 "콩고 내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험준한 코르시카섬의 산을 능선만 타고 섬의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훈련이 특히 힘들었다"고 했다. 프랑스군 십자무공메달과 나토(NATO)메달을 비롯해 무공훈장을 7개 받았다.
2001년 전역 후 프랑스에 정착하여 건설 현장에서 로프에 매달려 외벽을 타고 작업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2014년에는 외벽 타는 공사를 맡는 업체를 차려 현재 직원 15명을 두고 있다. 송씨는 외인부대 한인 전우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노병(老兵)을 돕는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남면 구미마을 출신으로 남면 상덕초와 해성중·고에서 수학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작년 10월에 남해를 방문하여 남해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도 방문하였다.

그는 비록 먼 타국땅에 있으면서도 늘 고향 남해를 생각하며 남해와 프랑스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남해를 빛내며 프랑스의 도시와 남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남해에 프랑스 마을도 조성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가을 프랑스한인회와 한국전 참전 프랑스 용사 가족 등 20여 명이 남해를 방문하여 남해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 프랑스에 남해를 알리게 될 것이다.

프랑스한인회장 **송안식**

관광문화 대국 프랑스와의 국제교류는 우리 남해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팸투어 진행을 통하여 남해를 구석구석 소개하고, 남해각 관광플랫폼을 중심으로 프랑스 주간을 정하여 어린왕자 테마전, 프랑스 예술 전시 등을 기획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장소 이순신순국공원 일원에서는 프랑스대대 한국전 참전 기념사진전, 호국 테마 춤극 공연 등을 개최하여 프랑스한인회 방문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문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나매지앵 국제교류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매지앵이란 남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은 순 우리말 "나매"와 시민을 뜻하는 프랑스어 "지앵(파리지앵)"의 합성어로 남해와 프랑스의 교류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인회 축제 코리안 페스티벌에 남해군을 초대하고, 프랑스 소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프랑스한인회 코리안 페스티벌

여기서 인생샷을 만나다.

섬이정원

사계절 다르게 각기 피어나는 꽃과 층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경관, 푸르른 남해 바다가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은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프랑스 북서부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생가와 정원이 떠오른다. 프랑스의 작은 시골 풍경이 펼쳐지며, 카메라 프레임이 향하는 어떤 곳이든 인생 샷으로 만들어준다.

프랑스 지베르니
Giverny

지베르니는 프랑스 수도 파리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프랑스 인상파 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가 이곳에서 생의 절반을 보내며, 대작 <수련>까지 탄생시킨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유명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FRENCH CULTURAL CENTER IN KOREA

주한프랑스문화원

남대문에서 염천교 방향에 있는 우리빌딩 18층에 가면 마치 프랑스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곳이 바로 프랑스문화원이다. 주한프랑스문화원은 1968년 9월, 경복궁 앞에 건립되었다.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문화원은 19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의 검열을 면한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였다. 1999년 말이 되자, 남대문 인근에 있는 우리빌딩 18층으로 이전하였다.

가장 먼저 최첨단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문화원을 좌우로 가르는 철제 구조물이 매우 세련되면서도 자유분방한 프랑스를 나타내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도서관, 강의실 등이 있고 나머지 한쪽은 프랑스 식당 '카페 데 자르'가 있다.
프랑스문화원은 실내장식에서부터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문화원은 프랑스 건축가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 Pierre Jalicon)이 선박의 내부를 주제로 설계했다.

도서관은 예술의 나라답게 세련된 분위기로 장르별로 책이 정리되어 있고, 잡지와 시청각 자료 등이 꽂혀 있다. 도서관 밖에서는 프랑스 위성방송을 시청하면서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는 프랑스어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프랑스 문화 강의를 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과학, 문학, 예술과 학술 등 분과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강좌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한국에서 프랑스를 사랑하고 불어를 쓰는 분들을 위해, 프랑스의 역사, 문화, 언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프랑스 또는 유럽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현재 운영 여부는 프랑스문화원에 확인필요

INTERVIEW

남해는 논을 감상하고 숲을 산책하거나 백사장에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남해가 주는 휴식은 매우 즐겁습니다.

루도빅 기요

Ludovic Guillot

주한프랑스문화원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원장 루도빅 기요(Ludovic Guillot)입니다. 서울에 산 지는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서울 생활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밑에서 일했습니다.

· 주한프랑스문화원의 배경과 주요 목표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원에서는 프랑스대사관을 대표하여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연구, 대학, 과학 교류, 프랑스어 연습을 촉진하고 주요 국제 행사, 비엔날레, 축제에 프랑스 제작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협력 활동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과 창의 산업은 프랑스 문화의 살아있는 힘입니다.
즉, 공통적인 동력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 문화원은 2020년부터 디지털 예술, 가상현실 분야의 신흥 네트워크와 새로운 동반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우리 문화원에서는 특히 양국 간의 활발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하는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와의 프로젝트에서 새로 부상하거나 기존에 자리 잡은 예술가와 문화 행위가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원에서 프랑스 작가와 지식인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들에서 근무하셨는지요?
프랑스 문화부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연계하여 일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근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느낌이나 문화적 특성은?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천 년이 넘는 문화가 있고 동시에 극도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프랑스문화원은 두 국가의 유산과 현대성을 모두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기관과 협력체와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류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한류 배우를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는 항상 매우 고무적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 한국 속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지? 남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남해는 논을 감상하고 숲을 산책하거나 백사장에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남해가 주는 휴식은 매우 즐겁습니다.

· 한국의 프랑스 지베르니라 불리는 섬이정원을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섬이정원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지만, 당연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지베르니에 관하여 말하자면, 아름다운 정원 그 이상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매년 방문하는 것처럼 지베르니 건물을 방문하면 가장 유명한 프랑스 화가이자 인상주의 그림의 아버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네는 1926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가족과 함께 이 집에 살았습니다.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자주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작품 '수련(Water Lilies)'을 비롯하여 수십 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기가 조성한 정원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예술가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모네의 친구 세잔(Cézanne), 르누아르(Renoir), 시냑(Signac) 또는 카유보트(Caillebotte)의 그림이 걸려 있는 그의 방, 작업실, 푸른 부엌 또는 노란 식당, 그리고 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저는 예술가 관저가 생기고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 예술가가 한국의 모든 문화 행사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교육에 대해 매우 중요시 하며 최대한 많은 한국인이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s Françaises)나 대사관 어학센터에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올바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대행사 기관을 통해 한국 학생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도록 장려합니다!

· 프랑스와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해 주세요.
프랑스는 뛰어난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지요! 유명한 프랑스 역사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프랑스는 다양성이라 불린다(France is called diversity)'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정말 사실입니다.
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몽생미셸(Mont Saint Michel), 코트다쥐르(Cote d'Azur), 르와르성(Loire Castles) 등... 모든 곳에서 훌륭한 박물관과 미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프랑스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문화원의 뉴스(https://kr.ambafrance-culture.org/)를 구독하세요! 우리 문화원의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곧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NAMHAE LOCAL PEOPLE

섬이정원

대표 **차명호**

섬이정원에 대해
‘우리정원’이었으면 한다.
관람객들이 정원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원한다.

원래 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원래는 서울에서 태어나 의류업에 종사해왔다. 젊었을 때부터 귀촌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 일을 정리하고 파주 헤이리 마을로 들어가게 됐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호미를 잡아봤다. 어느날 서점에 들어가 모네의 화집을 보다가 정원에 나오는 다리를 보고 마당에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연스러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연못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협소해 다리를 설치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다리없는 연못을 보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말해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하게 됐다.

제대로 된 나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찾던 중, 2007년 3월에 제주도를 방문하게 됐다. 그런데 3월의 제주도는 평소 내가 생각하던 온화한 모습이 아니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삭막한 모습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남해를 방문하게 됐다. 그곳이 바로 현재 섬이정원이 있는 곳이다. 처음 보자마자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섬이정원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해라는 섬 자체가 정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섬이는 두 자녀의 이름인 예섬(딸)과 한섬(아들)에서 가지고 왔다.

다랑이 논으로 사용되던 곳에 정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유럽식 정원과 우리나라 정원만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돌담 사이사이는 자연스럽게 식재할 수 있고, 돌담이 구획해놓은 동선 또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랑이의 높낮이를 이용한 자그마한 폭포로 정원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궁궐이 담과 문으로 독립적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공간이 만들어 지듯이 다랑이논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9개의 작은 정원들이 방의 개념으로 분할돼 각 방마다 개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서로 어울려 색다른 정경을 보여준다.

섬이정원에 대해 ‘우리정원’이었으면 한다. 관람객들이 정원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 주변의 돌과 담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최대한 전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중간 중간에 벤치나 정자도 설치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ITALY

다랭이마을 달빛걷기

계단식 논인 다랭이마을
야경 걷기와 풍등을 날리는 힐링
감성여행

기간 7월~10월
장소 남해 다랭이마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을길을 걷는
다랭이마을 달빛걷기

한국의 포지타노라고 불리는 남해의 다랭이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달빛 아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을 길을 걷는 '다랭이마을 달빛걷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마을 해설사와 함께 다랭이 마을 안길과 해안산책로를 걸을 수 있다. 다랭이마을 안길 → 해안 산책로 → 다랭이논이 있는 농로길 → 마을로 돌아오는 달빛 걷기 코스는 약 1.3키로로 도보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해설사로부터 마을의 문화재와 옛 농업 양식 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풍등 날리기 체험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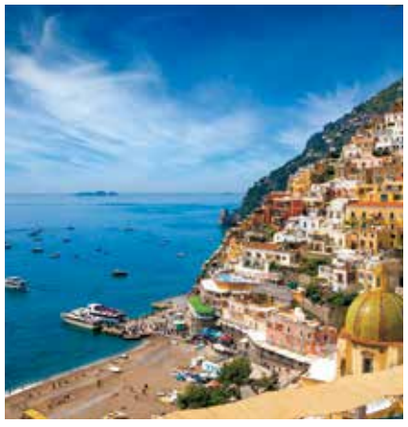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다랭이마을 두레방에 모여 출발하게 된다. 두레방에 모여서 간단한 주의 사항과 소망등에 소원도 적고 달빛걷기에 대한 소개 내용을 듣고나서 나눠주는 야간 등을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일행이나 가족과 함께 해안산책로를 걸어가며 가을 풀벌레 소리, 고개 숙이며 익어가는 논에 벼, 밤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들도 보고 중간 중간 오두막에 쉬면서 다랭이마을에 대한 유래도 듣고 편하게 걷는 밤 산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달빛걷기는 인기가 많아서 참가 인원을 당일 4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힘겹게 농사를 짓던 선조들의 애환이 담긴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다랭이논이 마을을 살리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다랭이논이 유명해지면서
남해에 가볼 만한 곳 중 하나가 되었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농촌 길을 걸으면서
어른들에게는 시골 외할머니 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농촌 야경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길이다.

여름 달빛걷기 행사는 그동안 정말 인기가 많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둘레길을 걷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 본 행사는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수행 사업은 아니며,
다랭이체험휴양마을에서 남해군의 지원을 받아 진행합니다.



이탈리아 포지타노
Positano

포지타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코스티에라 아말피타나(아말피 연안)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 파란 지중해를 품고, 수많은 계단을 따라 층층이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가득하여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폼페이, 소렌토, 카프리 섬 등과 함께 이탈리아 남부 여행의 주역이기도 하다.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3위
다랭이마을

푸른 바다를 접한 산비탈을 일군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랑이 논이 있는 마을로 섬 특유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민간신앙으로 숭배되는 남해 가천 암수 바위까지 만날 수 있다. 경사진 비탈에 들어선 아기자기한 집들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마치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에 있는 포지타노를 연상케 한다. 경사진 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면 아담한 건물 사이로 꼬불꼬불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는 것 또한 유사하다.

KOREAN ITALIAN CULTURAL CENTER

주한이탈리아문화원

2009년 6월부터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서울 중심지,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서 멀지 않은 위치인 일신 빌딩에 자리 잡고 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입주한 건물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신축 건물로, 유리로 된 전면과 측면의 넓은 벽에는 이 건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주변 경관이 투영된다. 건물 내에는 한국과 외국의 예술작품이 전시된 상설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탈리아문화원은 대사관, 관광청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문화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건물 3층에 있는 문화원은 무엇보다도 부서들의 기능,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 공동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새로운 문화원 건물은 21세기 이탈리아의 이미지를 더욱 잘 드러냄은 물론 업무와 미적인 면에서 현저히 개선된 건물이다.

이 공간에는 행정 사무실, 6000여 권의 도서와 다양한 분야의 잡지가 구비된 도서관과 최근 개설된 영화 dvd가 비치되어 있다.

이탈리아문화원은 이탈리아의 언어와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미술과 음악,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이탈리아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INTERVIEW

미켈라 린다 마그리

Michela Linda Magr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저는 한국이 역사와 유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과 매우 비슷한 한국인 특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이자 주한이탈리아대사관 문화 담당관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법무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이탈리아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일을 위주로 외교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인도네시아로 발령받아 9년 넘게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6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디자인, 패션, 예술, 음식, 과학, 기술 등 여러 부문에서 깊은 연관 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아로 돌아가 2년 일했던 로마 외무부에서 출발하여 2021년 6월 21일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의 배경과 주요 목표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협력하여 고전 예술, 디자인, 건축, 음악, 기술, 요리법, 미식 등 모든 최고의 분야에서 이탈리아 문화를 홍보하는 이탈리아 정부 기관입니다. 문화 이외에 이탈리아문화원에서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탈리아와 사업 관계를 위해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자 하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수업을 통해 이탈리아어를 홍보합니다. 2022년도 프로그램에서 우리 문화원은 2022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Italian Design Day 2022), 2021년도 베니스영화제 영화를 상영하는 베니스 인 서울(Venice in Seoul), 가을에 진행하는 전 세계 이탈리아어 위크(Italian Language Week), 재능 있는 예술가와 명망 있는 한국 기관과 함께하는 더 많은 문화 행사 등 연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들에서 근무하셨는지요?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세 곳에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두 번 파견 나갔고, 미국 LA에서 6년 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자체를 구별 짓는 고유한 문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문화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서 당연히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문화가 있고, 동서양의 문화를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양 국가와 한국에서도 같은 문화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가 더 인상 깊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이러한 나라에서 보내 기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 나라의 국민과 관계를 알 때까지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임기 동안 이러한 문화적 측면의 요점을 알고 발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 근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느낌이나 문화적 특성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10년을 지내고 아시아의 문화적 측면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역사와 유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인과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매우 아름답고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시작하고 문화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또한 모든 분야에서 이탈리아에 관하여 더 알고 싶어 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이탈리아문화원의 임무를 생각해보면, 이탈리아 문화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 춤, 라이브 공연, 과학, 기술, 교육, 연극, 언어, 교육, 모든 분야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인에게서 이러한 관심을 발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9개월 후에 제가 이탈리아 문화에 관한 상호 간의 지식을 향상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사의 풍성한 연출에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은 창작하는 능력과 전 세계에서의 성장에

남해에 유럽과 관련한 여러 문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남해가 이탈리아와 유럽 관광객의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을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영화, 비디오 게임, 대중 음악 등의 여러 분야에 강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못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리즈와 BTS 뮤직비디오가 미국 미술감독 조합(ADG)상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한국의 비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딱 한 곳을 추천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에 관한 이탈리아인의 관심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주, 경주 등 아름다운 곳을 즐길 수 있는 전국 곳곳이 방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해에 유럽과 관련한 여러 문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남해가 이탈리아와 유럽 관광객의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속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지? 남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울 외곽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끝나는 대로 가장 먼저 여러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추천한 남해에 갈 것입니다.

· 포지타노에 비유되는 '다랭이마을'을 아시는지요?
아직은 아니지만,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랭이 마을'에 방문할 것입니다. 포지타노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랭이 마을도 훌륭한 방문 장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 이탈리아와 남해의 문화교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문화원은 한반도 전역에서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며 이탈리아와 남해 사이에 장기적이고 유익한 문화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탈리아 문화를 남해에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처음 한 나라를 방문하면,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 지역과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미 저는 음악, 오케스트라, 춤과 같은 분야의 기관, 박물관, 갤러리, 민간협회 등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이미 가까운 미래에 이탈리아 예술가를 초청해 한국 예술가와 함께 이탈리아의 문화와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팬데믹 상황에 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본 이후 이것이 가능하면,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에 이 협업을 교환하고 우리의 상호 지식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바람은 모든 분야에서 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 문화의 일부인데 왜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이는 이탈리아 문화를 더 이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 한국에서 더 나은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이탈리아와 관계를 더욱 개선할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문화원 원장으로서 제 목표는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더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려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도록 노력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원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최대한 빨리 대부분의 행사를 열기 바라며,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 포지타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 이탈리아와 이탈리아의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은 이미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 박물관, 미술관, 이탈리아 브랜드, 디자이너, 고급 양장점은 이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하는 데 공헌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문화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수공예 기술, 대대로 전해지는 유산, 브랜드와 출신 지역과의 연관성, 이야기와 배경 등,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탈리아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한국에서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혁신에 관해서도 이탈리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열정과 이탈리아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더 잘 이해하려는 한국인의 호기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한국 학생이 밀라노, 볼로냐, 피사, 로마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대학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기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이룬 훌륭한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칠리아섬(Sicily Island)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칠리아섬 방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칠리아섬은 지중해 바다 중앙에 위치하며 2,000년이 넘게 여러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시칠리아섬은 한 곳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비잔틴, 아랍 등의 유물과 고고학 유적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섬에 방문하면, 풍부한 문화와 음식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탈리아를 여행할 수 없다면, 여기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문화원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공식 홈페이지나 페이스북(facebook.com/iicseoul1), 인스타그램(instagram.com/iicseoul)에서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홍보하고 이탈리아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영화, 춤, 음악, 미술 전시회, 음식 등에 관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시면 한국에서 이탈리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NAMHAE LOCAL PEOPLE

다랭이마을
카페 톨

공동대표 **송순영**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지나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카페를 지나다 보면 마치 이탈리아로 여행온 것 같다. 이곳 다랭이마을은 남해를 방문하였던 관광객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국의 포지타노라고 불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방앗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곳을 다시 메만져 한 달 살아보기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숙박시설로 만들었다.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남해를 느끼고, 남해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것이다. 매달 2명씩 한 달 살아보기 멤버를 모집해서 숙박과 식사, 일정한 금액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다. 여행 경비는 이곳 카페 톨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3분의 1은 이곳 남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 중 총 3일은 반드시 남해 여행을 해야 한다. 매주 사진과 글, 시 등 무작위로 남해에 대한 기억의 기록을 받고 있다. 이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고 수익 중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쓰인다. 올해 5월까지 한 달 살아보기 총 20기가 운영되었다.
이곳 다랭이마을은 남해를 방문하였던 관광객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국의 포지타노라고 불린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인 포지타노(Positano)는 이탈리아 남부 해안 아말피(Amalfi coast)해안에 위치한 마을 중 한 곳으로 푸른 바다를 접한 경사진 풍경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지나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 카페를 지나다 보면 마치 이탈리아로 여행온 것 같다. 솔직히 이탈리아보다 다랭이 마을이 더 이쁜 것 같다.

이곳 다랭이마을을 비롯해 남해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은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으면 한다.
이 멋진 풍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하다.

지난 2017년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가꾸며 지금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문을 연 시기는 2020년 봄이었다.
남해 미조면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에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남해에 내려오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근무하게 된 2000년쯤부터는 다랭이마을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남해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콘텐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남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곳 카페 톨은 남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의 공간이다.
이 곳 카페 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남해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다. 조금 걸어가면 숙박시설이 또 있는데 기존에는 방앗간이었다. 무려 1927년에 지어진 공간이었다.

HUNGARY

With 비세그라드그룹

V4 남해로의 소풍

전통요리와 음료, 영화 상영, 카르마 V4포스터전시 등 중유럽 네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

기간 2022년 9~10월 예정
장소 남해군 일원

협력과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될

V4 남해로의 소풍

비세그라드그룹, V4는 중유럽의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네 나라가 1991년도에 창설한 지역 협의체이다.
비세그라드 그룹(V4)은 중유럽 지역에 뿌리를 둔 국가들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지정학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 4개국은 다양한 종교적 전통 안에서 공동의 원류와 문화적, 지적인 가치들을 공유하며 단일 문명권을 일구어 왔으며, 서로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역사와 공동 문명에 대한 상호 인식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강화해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결속력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들 국가는 EU 경제 성장률의 2~3배 이상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우수한 노동력도 풍부해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도 이쪽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일찌감치 진출했는데 체코에는 연 35만 대 생산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슬로바키아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유럽과 경제협력에서 뺄 수 없는 중심 지역인 것이다. 네 나라를 합치면 독일 다음으로 우리가 수출은 많이 하고, 투자는 제일 많은 지역이다.

특히, 헝가리는 1980년대 말 우리가 북방 외교를 시작할 때 옛 동구권 가운데 가장 처음 수교한 나라로 우리 북방 외교의 출발점이었으며, 또 공산주의에서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아 V4 국가들과 함께 유럽에서 일종의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 속 아시아로 불릴 만큼 우리와는 민족적 유사성도 높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과 V4는 2021년 연말부터 헝가리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논의 중이며, 6월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기간 남해를 방문할 계획이였으나 갑작스런 외교행사로 인하여 하반기로 행사가 연기되었다.

2022년 가을 4명 ~ 6명의 V4 나라 문화 대표단과 전문 요리사가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바래길 탐방센터 야외 공간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남해각에서는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 중이다.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참여한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순국공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절규가 맴도는 곳으로,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과 수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이순신 영상관, 호국 광장, 관음포 광장 등 역사의 현장이자, 넓은 광장 및 분수대 그리고 각종 체험 공간 등은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 공원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의 모습과 동기화되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헝가리의 민족적 기원은 우리 민족과 아주 유사하며, 언어의 어순도 우리와 같다. 헝가리의 대표 음식 굴라시는 우리의 김치찌개를 떠올리게 만든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
Hősök tere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1896년 공사를 시작한 후 1929년 완공되어 밀레니엄 광장으로 불리다가 3년이 지난 후부터 현재의 이름인 영웅광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은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휴식처인 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며 기념일에 각종 행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폴란드 자코파네
Zakopane

자코파네는 폴란드 남부에 있는 작은 휴양지로 나라의 대부분이 평지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타트라 산맥과 구바우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 여유롭게 트레킹을 즐기며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 폴란드 현지인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자코파네의 타트라 산맥을 보라" 고 할 정도로 힐링의 장소이자 영혼의 안식처이다.

이국적인 정취의 압도적인 풍경!

창선고사리밭길

우리나라 고사리 최대 산지인 가인리 일대의 구릉지대가 만들어낸 초록으로 물든 이국적인 정취의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감탄에 감탄을 얹어도 모자란 국보급 경관에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길이다. 유럽 트레킹 명소인 폴란드 자코파네의 구바우카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완만한 경사의 푸른 초원을 떠올리게 한다, 고사리밭은 폴란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로니아밭 같기도 하다.

LISZT INSTITUTE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명동 유네스코 건물 8층에 자리한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은 2019년 12월에 개원한 비교적 신생문화원이다.
유럽 내 가장 큰 재외 한국문화원 중 한 곳이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일 만큼 두 국가가 활발히 교류를 이어가다,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에도 헝가리문화원을 열었다.
2021년 9월 헝가리문화원은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에 헌정한다는 의미로 전 세계 문화원의 이름에 '리스트'를 더했다.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외부 복도를 따라 헝가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기록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헝가리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해준다.
내부로 들어오면 헝가리의 세계적인 발명품과 특색 있는 헝가리 문화 보물들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안쪽 공간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헝가리 도서와 원서 등이 비치되어 있어 헝가리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헝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눈여겨보면 좋을 듯하다. 헝가리 아동도서도 갖춰져 있기에 어린이와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1989년 구동구권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헝가리는 30년간 꾸준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며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12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돼 유럽에 한류를 알리는 일등 공신으로 활약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헝가리 와인 시음회, 헝가리 전통 수공예 워크숍, 루빅큐브 관련 행사, 출판기념회, 학생 대상으로 국제관계 이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온라인영화제, 헝가리어 수업, 문화소개, 헝가리 유명 음악가들의 영상 인사 시리즈 등의 온라인프로그램을 공식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INTERVIEW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고대의 것과 선진의 것,
구식인 것과 최첨단의 것,
나이 듦 과 젊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은 물론 강렬한 대조가
한국의 모든 것을 구별
짓습니다.**

메드비지 이스트반

István Medvigy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 원장 메드비지 이스트반 (István Medvigy)이며, 지난 9월부터 서울에 있는 우리 문화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외교 분야에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민간 부문에서 일했으며, 한국에서도 몇 년 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의 배경과 주요 목표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약 2년 전, 헝가리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던 해인 2019년 12월 12일에 개관했습니다.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은 명동의 유네스코 건물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명동은 서울에서 역사적이며, 매우 유행을 앞서는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있어 우리는 서울 모든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건물에 있어 더욱 눈에 잘 띄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약 1년 전에 우리 외교부에서 시작하여 실행한 장기 리브랜딩(re-branding) 과정이 두어 달 전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헝가리문화원에는(극소수의 문화원 제외하고) 리스트 페렌츠(Liszt Ferenc)의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을 가장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트 페렌츠는 가장 위대한 헝가리인 중 한 명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과 이미지는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활동에 관하여 말하자면, 문화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우리는 미술 전시회, 영화, 클래식 음악, 민속 음악, 대중 음악, 예술과 공예, 요리 행사, 스포츠, 교육 영역 전반에 걸쳐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적응하며, 우리는 최근 더 많은 온라인 행사와 통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 더 흥미로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중도 그런 콘텐츠를 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들에서 근무하셨는지요?
여러 나라에서 일했지만, 외교관으로서는 한국이 첫 번째 나라입니다.

· 근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느낌이나 문화적 특성은?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여 매우 기쁩니다.
헝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최근 헝가리 젊은이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환상적인 기억이 많지만, 수년 전에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는 당연히 경복궁이었습니다. 오래된 궁궐 지붕 뒤쪽과 위쪽에 배경이 되는 고층 건물과 현대식 건물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새롭고 화려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고대의 것과 선진의 것, 구식인 것과 최첨단의 것, 나이 듦 과 젊음의 자연스러운 균형은 물론 강렬한 대조가 한국의 모든 것을 구별 짓습니다.

· 헝가리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딱 한 곳을 추천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전국 곳곳에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서 한 곳을 고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고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원의 주요 업무이자 행사 목표는 헝가리의 가치, 역사, 풍부한 문화를 홍보하고 교육하며 한국 관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남부 지방은 서울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남해, 부산, 제주와 같은 지역도 꼭 가봐야 할 장소에 포함됩니다.

· 한국 속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지? 남해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세요.

남해관광문화재단과 접촉하며 우리는 남해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헝가리문화원의 몇몇 직원은 남해까지 가서 며칠 즐겁게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편안한 분위기와 다채로운 장소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 비유되는 '이순신 순국공원' 을 아시는지요?

우리도 그 공원을 알지만, 아쉽게도 아직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이자 한국의 가장 훌륭한 장군인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부다페스트의 가장 상징적인 광장 중 하나와 비교된다는 점이 감동적이고 영광스럽습니다.

· 헝가리와 남해의 문화교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남해관광 문화재단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없지만,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단순히 헝가리와 헝가리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한국) 정부, 문화 예술 기관, 국민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시연 및 발표 방식 대신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현지 생활과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솔직히, 더 흥미롭습니다.
주한 리스트 헝가리 문화원이 한국 사람, 헝가리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헝가리 행사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접촉하고 있으며,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 헝가리와 헝가리의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헝가리는 작은 나라임에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구 천만 명의 헝가리는 의학, 화학, 물리학, 경제, 문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국가라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비타민C(얼베르트 센트죄르지(Albert Szent-Györgyi)), 홀로그래피(데니스 가보르(Dénes Gábor)), 전자계산기(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루빅스 큐브(루비크 에르뇌 (Ern Rubik)), 에스프레소 머신(프란체스코 일리(Ferenc Illy)), 볼펜(라슬로 비로(László Bíró))을 헝가리인이 발명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리스트 페렌츠, 코다이 졸탄 (Zoltán Kodály), 바르톡 벨라(Béla Bartók))가 있는데, 자랑스럽게 그들 중 한 명(리스트 페렌츠)의 이름이 헝가리문화원명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와 영화감독도 있습니다. 일부 영화는 작년에 상영했고,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인 써보 이스트반 (István Szabó) 감독의 메피스토(Mephisto)는 올해 한국에서 재상영할 예정입니다.

헝가리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인 페렌츠 푸슈카시(Ferenc Puskás) 등의 자랑스러운 스포츠인도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은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2021년 국제축구연맹 푸슈카시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환상적인 와인 토커이어수(Tokaji Aszú)처럼 일부 와인은 마침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맛을 연상시켜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 음식인 굴라시(goulash) 요리의 아름다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헝가리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문화원의 주요 업무이자 행사 목표는 헝가리, 헝가리의 가치, 역사, 풍부한 문화를 홍보하고 교육하며 한국 관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2019년 말에 개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꽤 역사가 짧은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문화원에서는 벽에 많은 정보(유명한 헝가리 특산물, 건축 양식, 발명품)를 게시하며, 기분 좋고, 따뜻하고, 안락하며, 격식 없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은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어린이 코너가 있어서 아이가 있는 가족의 방문도 환영합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문화원이지만, 우리 문화원은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새롭게 갱신하고 서명한 문화, 예술, 스포츠, 언어교육 영역에서의 두 나라 사이 MOU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부다페스트 5구 리포트바로스(Lipótváros)와 서울 강남구 간에 공식적인 자매도시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전시회 중 하나는 보조끼 데죠 (Dezs Bozóky) 박사의 사진전이었습니다. 보조끼 데죠 박사는 1908년에 한국을 방문해 인천, 서울, 부산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담은 헝가리 의사입니다. 그 전시회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였고 그다음으로 인천 그리고 부산에서 개최하였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감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구근대역사관이 전시장에서 전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며칠 동안 한국 관객을 위해 헝가리 영화를 상영하는 헝가리 영화의 날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서울아트시네마와 협업하여 그곳에 2주간 주말에 우리 문화원에서 신중하게 선별한 5편의 헝가리 영화를 관람객에게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원에서는 유럽연합 국가 문화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준비하여 매년 개최하는 EUNIC 영화제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한국 학교가 우리 문화원을 방문(혹은 우리 문화원이 학교에 방문)하고 헝가리 문화, 언어, 역사, 사회적 가치에 관해 강의를 제공하며 오픈하우스 프로그램(Open House Program)과 EU 학교 방문 프로그램(EU Goes to School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예술, 공예 교육 및 시연 행사, 와인 시음회, 강의, 임시 전시회 등을 준비합니다.

NAMHAE LOCAL PEOPLE

이순신 순국공원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김아름** 매니저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마지막 승전을 거두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것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이순신 순국공원의 뜻과 의미가 절로 느껴졌고, 이순신 장군의 장엄함마저 떠오르게 만들었다.

남해 미조에서 20년을 살았다. 성인이 되면서 그토록 꿈꿨던 도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확히 10년 후, 다시 남해로 돌아왔다. 남해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다.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만 해도 잘 없었던 카페들이 이제는 어느 동네를 방문하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과 독립서점이나 전시관 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이락사'로 기억되었던 지금의 '이순신 순국공원'이 이렇게 멋진 곳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 기억 속의 이락사는 몇 개의 계단과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나오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던 곳이 이순신영상관을 비롯하여 호국광장과 관음포 광장, 리더쉽 체험관까지 갖추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남해군민에게는 포근한 안식처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멀리 나가 있는 동안 남해는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었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1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남해로 내려와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순신 순국공원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위해 단체로 방문하거나 가족끼리 소풍 삼아 들렀던, 조그마하고 소박한 이락사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공간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마지막 승전을 거두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것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이순신 순국공원의 뜻과 의미가 절로 느껴졌고, 이순신 장군의 장엄함마저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순신 순국공원을 둘러보면서 가본 적은 없지만,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는 영웅광장이 떠올랐다. 영웅광장은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또한 헝가리를 이루는

마자르족은 아시아계통의 민족으로 비록 유럽에 위치하나 우리와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과 이순신 순국공원이 굉장히 닮은 듯 느껴졌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부다페스트의 영웅광장에도 들러 헝가리의 역대 왕과 영웅들의 조각들을 보며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웅장함과 장엄함을 느껴보고 싶다.

UNITED KINGDOM

전국 최초의 토피어리정원!

토피아랜드

'토피어리'는 식물을 다듬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의미한다. 전국 최초 토피어리 정원인 남해의 토피아랜드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영국 왕조가 만든 컴브리아 주, 켄달 레벤스 홀과 닮아있다. 꽝꽝나무, 주목나무, 동백나무 등을 활용하여 수많은 토피어리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공룡 가족, 대칭 정원, 고려청자 등 다채로운 토피어리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눈이 즐거운 곳이다. 녹색 식물과 편백나무숲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이 힐링 된다.

영국 켄달
Kendal

켄달은 잉글랜드 컴브리아주에 속한 작은 도시다. 켄트강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수 세기 동안 켄트강 계곡의 교회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커크비켄달'로 불렸다. 호수가 많은 산지로 잉글랜드 도보여행의 성지인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속한 곳이기도 하다. 켄달에 있는 레벤스 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피어리 정원으로 유명하다.

THE BRITISH COUNCIL

주한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은 문화 관계와 교육 기회를 위한 영국의 국제기관이다. 우리는 예술과 문화, 교육 및 영어를 통해 영국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해 및 신뢰를 구축한다. 작년 한 해 동안 7천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였고 온라인, 방송, 출판물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5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했다.
1934년에 설립된 영국문화원은 영국 왕실 인가(Royal Charter)에 따라 운영되는 자선기관이자 공공기관이다. 총 기금의 14.5퍼센트를 영국 정부로부터 받는다.

주한영국문화원은 1973년 8월 서울에 설립된 이래로 영어교육, 문화예술, 교육 및 사회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관계 사업으로 한국과 영국을 더욱 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철저하게 검증된 강사진과 영국문화원에서 자체 개발한 수업자료, 첨단 시설을 보유한 5개의 어학원 센터를 운영하며, 영어교육 정책 연구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 세계 11,000개의 인정기관을 보유한 국제공인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의 공식 주관사이자, 영어진단평가 앱티스(Aptis) 및 영국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문화원
www.britishcouncil.kr

INTERVIEW

우리 문화원에서는 영국과 전 세계 사람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영어를 통해 친밀함, 이해, 신뢰를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샘 하비
Sam Harvey

주한영국문화원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샘 하비(Sam Harvey)이고 주한영국문화원 원장입니다.

· 주한영국문화원의 배경과 주요 목표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국문화원은 교육 기회와 문화 관계를 위한 영국의 국제기관입니다. 저희 영국문화원에서는 영국과 전 세계 사람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영어를 통해 친밀함, 이해, 신뢰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국문화원에서는 어린 학생과 성인에게 교육 센터와 디지털화된 영어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IELTS 시험을 포함한 영어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영어 교사의 전문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지방 교육청, 기타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의 교육 업무는 학생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영국의 고등 교육 기관 사이에서 과학, 혁신, 연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협력을 촉진하며, 한국 정책입안자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문 교류에 이바지합니다. 예술과 문화 부문에서 저희는 예술가와 창작가가 양국의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뿐만 아니라 지식 교환, 상호 학습과 협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더 강력한 영국-한국 예술 및 창의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들에서 근무하셨는지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 짐바브웨에서 일했습니다.

· 근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느낌이나 문화적 특성은?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아름다운 해안과 산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일할 때, 문화적 유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근무 환경에 적응하였습니다.

· 한국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에서 3년간 추억이 많아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 몇 가지 두드러진 것은 난지한강공원의 벚꽃 아래까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간 것, 인제군의 눈 쌓인 나무 사이를 걷던 것, 제주도의 생선튀김과 감자튀김, 서울과 한국의 궁과 유적지를 방문한 것,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 등이 있습니다.

· 영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딱 한 곳을 추천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전쟁기념관입니다. 한국전쟁기념관은 현대 한국에 대한 중요한 역사와 배경을 알려주며 모든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욱 널리 방문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 박물관과 미술관의 다양성과 품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 한국 속 유럽으로 알려진 남해에 대하여 혹시 아시는지? 한 말씀해주세요.
아직 남해에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여러 번 추천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경치와 해안을 보고 용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 영국 켄달의 레빈스홀에 비유되는 '토피아랜드'를 아시는지요?
토피아랜드에 가보지 않았지만, 좋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여 켄달(Kendall)의 레빈스홀(Raven Hall)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 영국과 남해의 문화교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계획은 없지만, 영국과 남해 사이 문화 교류를 발전시킬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올해 목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 교류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관계를 구축하고 혁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면으로 기술 활용을 통해 목표를 점차 이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예술가가 문화 회담(Cultural Summit)을 통해 영국에 있는 예술가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 에든버러 축제(Edinburgh Festivals), 영국문화원 사이의 파트너십인 모멘텀(Momentum)을 통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LINK(Learning, Innovation and Networking through Knowledge)를 통해 한국 공무원의 영국 유학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유학동문상(Study UK Alumni Awards)를 통해 영국에서 유학한 12명의 한국 동문들을 선정,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축하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https://www.britishcouncil.kr/study-uk/ukalumni/alumni-awards

· 영국과 영국의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긍정적인 점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저는 영국에 돌아갈 때마다, 다양한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과 그 다양한 문화가 주는 모든 기회를 즐깁니다. 한국도 (더 크라운)과 같은 시대극의 성공에 일부 영향을 받아 세계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대해 상당히 전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즐길 수 있고 관광객이 영국 역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박물관과 유적지가 많습니다. 영국이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네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나라는 고유의 문화유산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영국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음악, 패션, 문학, 음식, 디자인, 춤, 연극 및 영국 문화의 아주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영향의 흥미로운 혼합체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대 영국을 더 잘 이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영국문화원 웹사이트(www.britishcouncil.org/arts)를 방문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영국문화원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다양한 활동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영국문화원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방문해주십시오.

SWITZERLAND

알프스를 품고 있는 스위스 느낌!

양떼목장

산속에 위치한 남해의 양떼목장은 알프스를 품고 있는 스위스 느낌의 드넓은 초원과 푸른 하늘, 하얀 양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귀여운 양들과 교감을 나누며 스위스 양치기의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보더콜리의 환상적인 양몰이와 편백숲 산책로도 만나볼 수 있다.

스위스 인터라켄
Interlaken

인터라켄은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요흐'가 위치한 스위스 대표 관광도시이다. '호수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산악 철도, 케이블카 등의 교통 발달로 스위스 관광의 관문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FINLAND

핀란드의 푸른 자연이 저절로 생각나는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1960년대에 조림된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 및 삼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욕 휴식공간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마치 핀란드의 푸른 자연이 저절로 생각나는 곳이다. 넓게 펼쳐진 푸른 나무들 사이 포근한 통나무집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점이 닮아있다.

핀란드 에스포
Espoo

에스포는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위성도시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만큼 큰 규모의 첨단 기술 허브인 곳이다. 게다가 핀란드의 대자연을 옮겨 놓은 듯하여, 미니어처 핀란드라는 눅시오 국립공원 등을 품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NETHERLANDS

정원하면 생각나는 그곳!

원예예술촌

원예예술촌은 20여 명의 원예인들이 모여 이룬 마을로, 아름답고 개성적인 21개소의 주택과 정원이 세계 국가별 이미지와 테마를 살려 조성되어,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원예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다양한 정원을 감상하며 느리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정원하면 생각나는 그곳. 네덜란드의 풍경이 머릿속에 떠다니며 마음속에 포근한 꽃을 피워낸다.

네덜란드 리세
Lisse

리세는 네덜란드 서부 자위트홀란트주의 도시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튤립 축제가 개최되는 쾨켄호프를 품은 곳이다. 원예 강국인 네덜란드 그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꽃 축제가 열리는 쾨켄호프 공원에 입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튤립국, 원예국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GREECE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는

빛담촌

조용하고 아늑한 이 마을은 남면 선구리 항촌마을에 조성한 펜션 단지이다. '빛을 담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알록달록하면서 아기자기한 건물과 쪽빛 바다, 길을 따라 피어있는 꽃나무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마치 지중해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스 산토리니
Santorini

산토리니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경사지를 따라 흰 벽과 파란 지붕의 건물 풍경으로 유명한 섬 지역이다. 이 대표적인 풍경을 담은 곳이 이아 마을이다.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원래 있던 큰 섬이 대부분 사라지고 남은 칼데라 지형이다. 라틴제국 때 이곳에 있던 성당 이름인 Santa Irini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티라'라고도 불린다.

SPAIN

스페인풍의 전원마을

화계전원마을

남해군이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지역에서 살고 싶은 도시민을 위해 이동면 화계 지구에 스페인풍의 전원마을을 조성 중이다. 앵강만을 바라보는 멋진 자연경관과 주요 기반 시설을 갖춘 화계전원마을에서 스페인풍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보낼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스페인 출릴라
Chulilla

출릴라는 발렌시아 지방에 속해있으며, 투리아강이 출릴라에 들어가면서 이는 출릴라에 석회암 암석을 가로지르는 수직 벽과 깊은 협곡을 만들어냈다. 또한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출릴라 성, 고딕 양식의 건물인 에르미타주 오브 스타 등 수많은 문화유산의 흔적이 새겨진 곳이다.

LUXEMBOURG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조용한마을

동화마을 남치

남해 속에서도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남치마을은 자연 요새로 역사상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마치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조용한 마을이다. 운치 있는 저수지 옆 고즈넉한 정자에서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남치마을은 유럽의 숨은 골동품 룩셈부르크를 떠오르게 한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대국산의 요새 대국산성은 마치 룩셈부르크의 비안덴 성이 떠오르게 한다. 푸릇한 산속에 우뚝 솟아 있는 성의 모습이 동기화되는 곳이다.

룩셈부르크 비안덴
Vianden

비안덴은 룩셈부르크 근교 비안덴 주의 주도이자 작은 마을이다.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 겸 극작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이곳 비안덴에서 망명 당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인 레미제라블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비안덴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숲이 우거진 고지대에 비안덴 성이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식 목재 구조주택의

미국마을

남해에서 미국의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와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미국식 목재구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전통주택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에 위치한 펜션을 이용해 보자. 입구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미국 몬테발로
Montevallo

몬테발로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있으며, 특히 녹지 공간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르 공원, 숄 크릭 공원 등의 다양한 공원들과 도시 전체를 두르는 하이킹 트레일이 존재한다. 자연의 색깔을 느끼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유럽 감성과 남해 전통의 조화, 꽃섬 유니크베뉴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

이순신순국공원에는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리더십 체험관이 있다. 조선 수군의 모습과 회의를 접목한 전통문화교육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의를 기획해보자.

앵강다숲

꽃고리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었다는 앵강만에는 상수리나무와 바래길탐방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걷는 여행과 함께 요가, 명상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난티 남해

골프 코스와 오션뷰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프라이빗 레지던스 연회장은 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설비를 갖추고 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이순신순국공원내 영업을 하던 옛 카페테리아 자리에 관광문화재단 사무실을 꾸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최첨단 IT기업의 사무실 같은 감성과 멋진 자연경관까지 옆에 두고 있어 업무협의나 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찐 유니크베뉴이다.

엘림마리나&리조트

국내 최초 마리나&리조트인 엘림마리나&리조트가 2020년 복합 휴양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액티비티한 요트체험과 지중해식 음식, 그리고 콘서트 홀과 바이크 전시장을 만나는 특별한 회의 공간이 될 것이다.

남해스포츠파크호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덴마크 국가대표팀이 준비캠프로 이용한 고품격 호텔이다. 사계절 푸른 잔디로 유명한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과 풋살경기장을 비롯하여 해수 사우나, 헬스장, 노래방, 루프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가득하다.

보물섬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남해 여권 스탬프 투어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보물섬 남해로 떠나는 해외여행' 이라는 주제로 여권 스탬프 투어를 5월부터 진행한다.

남해 여권 스탬프투어는 남해의 이국적인 관광명소를 세계 여행하듯이 방문하면서 인증 도장을 찍을 수 있다.

대상지 총 10개소

1. 양떼목장

2. 섬이정원

3. 다랭이마을

4. 설리스카이워크

5.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6. 원예예술촌

7. 독일마을

8. 토피아랜드

9. 남해전통시장

10. 이순신순국공원

남해각 관광플랫폼에서 완료도장찍기!

남해각 관광플랫폼 설천면 남해대로 4216 T. 055-864-0661

여권스탬프투어 정규 10개 코스가 휴관 등으로 스탬프 날인이 불가할 경우 현장 증빙사진을 찍어 남해각 관광플랫폼에 제시하여 인증받고 스탬프 날인 가능함.

남해 속 세계여행 여권 스탬프투어 어떻게 진행할까?

Step.1

남해각
관광플랫폼 방문

"남해 여권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해 여권을 받아야 한다"

남해각 관광플랫폼에 방문하면 남해여권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여권처럼 여러분의 사진과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된다.

Step.2

남해 여권에
스탬프 받기

여권에 나온 총 10개소 남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 스탬프 찍기

여권을 상세히 보면 방문해야 할 곳의 설명과 어디에서 스탬프를 받을지도 나와있기에 설명을 따라 하나하나 스탬프를 모으면 된다.

Step.3

남해각
관광플랫폼에
여권 제출하기

여권 및 기념품 수령 시간
화~일, 10~17시
*월요일 휴무

10개소 스탬프를 모두 찍은 후 남해각 관광플랫폼에서 완료스탬프를 받으면 해랑이 인형이~

10개소 스탬프를 모두 찍은 후 마지막 제출처는 바로 남해각 관광플랫폼이다!
(중간에 스탬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한국속 유럽, 남해를 위한 상상

「노량에 色을 THE하다.」

노량의 횟집타운에 코펜하겐처럼
원색의 컬러를 입혀본다면 어떨까?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되며 남해는
국민관광지로 오랫동안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특히 노량 권역은 보물섬 남해군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자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렬사가 위치해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노량 횟집
타운이 형성되어 상시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오다가 2018년 노량대교의 개통으로
노량횟집타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해각 관광플랫폼 및 남해대교 자원자원화사업,
그리고 지난 4월 왕지 벚꽃시즌에 맞추어 개최된
바래길 봄 축제 등 노량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이 흥미진진한 문화 중심도시는 호수로도로
유명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놀이공원인 티볼리 가든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유럽의 3대 실망 관광명소라는
인어공주도 있다.

하지만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은
옛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인공 항구 겸 포토 포인트인 뉘하운이
아닌가 싶다.
뉘하운은 '새로운 항구'라는 의미로,
바닷가와 마주하고 있는 서민적 분위기의
운하이자 항구. 1637년에 개설된 이후
예전에는 항구 노동자들의 선술집과 작은
규모의 집이 많이 늘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생기고 가격 또한
오르면서 예전 같은 소박한 분위기는 많이
퇴색되었다. 하지만 운하 북쪽을 중심으로
여러 색깔로 칠해진 아기자기한 집들과
운하가 어우러져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색색의 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동화
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늘어선 노량횟집을
보고 있으면 코펜하겐의 뉘하운을 대표하는
운하와 맞닿은 원색의 아기자기한 집들이
떠오른다. 물론 색깔은 비록 다르지만...,

노량의 횟집타운에 코펜하겐처럼 원색의
컬러를 입혀본다면 어떨까? 신안군의
퍼플섬이 보라색이라는 색깔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듯이 우리 남해의
노량권역도 알록달록한 원색의 색을 더하여
콘텐츠를 만든다면 멋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즐겁게 상상해본다.

한국속 유럽, 남해를 위한 상상

「골목길, 마을, 그리고 문화원」

남해읍의 골목길을 유럽 각국의
유명한 문학작품들을 소재로 그림을
채워본다면 어떨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해초등학교는
남해읍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초등학교 옆 골목 담벼락에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세계적인 문학
어린왕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1943년 발간 이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비 건조했던 골목길이 이 그림 하나로
새로운 활력이 느껴졌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곳에 불빛이 비쳐지면 그림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최근 남해읍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해읍의 골목길을
유럽 각국의 유명한 문학작품들을 소재로
그림을 채워본다면 어떨까? 프랑스 어린왕자길,
독일 브레멘음악대길, 이탈리아 피노키오길,
영국 해리포터길, 벨기에 스머프길 등으로
꾸며본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남해의 골목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동화 속에 와 있는 기분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남해읍의 멋진 골목길을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걸어보고 싶다.

남해에는 독일마을, 스페인마을(화계전원마을),
미국마을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많은 이국적인
마을 들이 이미 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남해군 전역을 프랑스 마을, 이탈리아 마을,
네덜란드 풍차 마을 등 유럽 각국의 마을들로
조성해간다면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 마을과 유럽 각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콘텐츠를 채우고
남해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유럽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남해만의 새로운 레시피로
개발한다면 새로운 소득개발로 이루어질
듯도 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표요리
부베야스를 남해 프랑스 마을의 바지락으로
만들어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관광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관광,
주택, 생산을 함께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산업을 통해 만나고, 꿈꾸고, 디자인하고,
마을을 세우고, 함께 일하며 소통하는 주택 및
공동체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남해각은 1975년에 건립된 이후 남해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이자
휴게공간이였다. 지역명소였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최근 재생을 통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하에는 관광플랫폼이, 지상 1층에는
아카이브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은 유휴공간인 이곳 지상 2층의 공간을
창고형 카페로 꾸며진 대전프랑스문화원
앙트르뽀와 같은 유럽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등 한국에 문화원을
개설 중인 유럽 각국의 남해 분원을 이곳에
함께 유치하여 비록 소규모지만 유럽 각국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속 유럽 남해를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새로운 지역명소,
아니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즐겁게
상상해본다.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유럽문화행사 "별마당에서 유럽으로 와유"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남해 취재

Hidden Charms of Korea
보물섬 남해

남해는 유럽과 닮은 풍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의 명소,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유명해진
핫플레이스 등이 즐비하다.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기자단이 남해의 숨겨진 매력을 취재하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10개 국어로
홍보하였다.
코리아넷 기자단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남해를 방문하여
숨겨진 명소와 유명한 명소 중에서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곳을 찾아 취재했다.
코리아넷이 남해군을 찾았던 3일간은 잔뜩
구름 낀 하늘과 제법 센 바람에 이따금
빗줄기가 흩날리기도 했었다. 맑고 화창한
날의 남해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흐린 날 남해는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남해를
바라보기엔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었다.
낡고 허름한 어촌의 냉동창고가 자연과
근사하게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미조면의 '스페이스 미조', 이동면에
있는 금왕사를 찾으면 발밑의 낮은 구름을 보는
운치를 만끽할 수 있고 주지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한국의 주상절리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남해에도
못지않은 웅장한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랭이 마을에 가면 '삿갓배미'라는 이름의
작은 논을 찾아보며 그 작은 공간까지도
농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남해 농부들의
정성과 성실함을 절실히 느껴볼 수 있었으며,
삼동면 해안가에 있는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방풍 방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직도 마을에서는 매년 10월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쇠섬에 마음을 빼앗기자마자 제주에 먼저
내려가 있던 남편을 당장 올라오라고 했던
부부의 귀촌 스토리, 그 들은 "아침에 보는
쇠섬, 노을 지는 쇠섬, 새벽녘의 쇠섬이 다
다르다"며 "해 뜨기 전 호수처럼 고요한 쇠섬의
모습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남해가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이며 다채로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우리 남해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이나 홍보는
사실상 힘든데 코리아넷과의 협업을 통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효과적으로 남해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감성 관광 가이드 북 제작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 등 6개 국어로 제작
「지금 여기 애(愛), 남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준비와 동시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앞두고 남해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남해 대표관광지와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다국어 관광 안내 포켓북을 제작했다.
휴대가 간편한 미니사이즈에 20쪽 분량의
간편북으로 만들어져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중국어·일본어 관광안내책자만
제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해에서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책자도 제작하여 글로벌
관광마케팅의 폭을 한층 넓혔다.

독일어 책자 제작 배경은 대표 관광지
독일마을에 대한 상징성과 더불어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는
등 지금까지 독일과 관광문화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프랑스한인회장에 남해군
출신 송안식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해군은 프랑스와 미래 관광문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프랑스어 관광안내 책자까지
선보이게 됐다.

다국어 책자 지금 여기 愛 남해, 제작으로
전 세계에 남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국 속 유럽, 남해 브랜드 구축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남해
그리고
유럽

Namhae & Europe

비교하며 보는 남해 그리고 유럽!

남해는 유럽을 연상하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유명 관광명소 외에도
음식, 축제, 박물관, 미술관 등 유럽과 연결되는
다양한 문화 예술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남해 만의 독특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유럽과 비교하며 살펴보자!

Namhae

설천 노량 해초회덮밥

다양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고 해초의 맛을 극대화 한 유자를 활용한 소스와 신선한 활어회가 어우러진 해초회덮밥은 남해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될 예정이다.

고현갈화 왕새우구이

남해 청정 바다에서 직접 갓 잡아올린 왕새우는 신선도가 높아 연하면서도 탱글한 육질과 함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천일염 위에서 익어가는 새우의 고소한 향이 솔솔, 신선한 왕새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서면서상 물회

다양한 해산물들이 살얼음들 사이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남해 물회. 우럭, 농어 등 각종 활어회와 문어, 멍게 등 해산물이 그릇을 가득 채운다. 면 사리와 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강한 시원함이 느껴진다.

남면 다랭이마을 갈치조림

갈치조림에 들어갈 양념의 최적 배합률을 연구하고, 늙은 호박까지 곁들여 칼칼하면서도 깔끔 담백한 맛을 내도록 했다.

보물섬한우

남해한우는 연중 온화하고 오염이 없는 청정 환경에서 길러져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최고급 한우로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다.

삼동지족 멸치쌈밥

양념에 맛있게 버무려진 멸치를 바글바글 끓여 야채 쌈과 함께 먹는 남해 대표 로컬 음식. 골다공증은 물론 노화 방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건강한 웰빙 요리이니 남해를 여행한다면 꼭 먹어보자.

창선단항 우럭미역국

미역과 활우럭을 사용한 육수에 치자 옹심이를 더하고 남해산 어간장으로 간을 해 싱싱하고 깊고 담백한 우럭미역국을 맛볼 수 있다.

미조 털게

털게는 1월 부터 4월 하순에 나오며 양식이 되지 않으며 잡히는 양이 일정치 않아 매우 귀하다. 대게나 꽃게 등 여러 종류의 게가 있지만 살이 달달하고 살살 녹는 특징이 있는 털게는 먹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별미이다.

Europe

영국 피시앤칩스

피시 앤 칩스는 대구, 해덕 등의 담백한 흰살 생선에 두툼한 튀김 옷을 입힌 생선튀김과 길쭉한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음식이다. 바삭한 튀김 속 생선살은 부드럽고 감자는 포슬포슬한 것이 특징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프랑스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용 달팽이 요리를 말하며 끓는 물에 데쳐 마늘과 버터, 파슬리 등을 껍질 속에 넣고 오븐에 구워 낸다. 달팽이 요리는 맛은 물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과 필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슈바인학센

슈바인학센은 독일의 돼지고기 요리이다. 바이에른주에서 즐겨 먹으며 재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부위가 족발과 비슷하지만 족발과 달리 슈바인학센은 돼지의 발 끝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흔히 으깨거나 얇게 썬 감자와 사우어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다.

이탈리아 스파게티

파스타는 가루를 반죽할 때 달걀을 섞어서 하는 이탈리아 국수요리를 말한다. 스파게티는 마카로니처럼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며, 이탈리아가 원산지이다. 특수 강력분으로 만든 스파게티를 이탈리아에서는 식사 첫코스에 먹는 데 비해 다른 나라에서는 일품요리로서 주식으로 이용한다.

헝가리 굴라쉬

굴라시는 파프리카 고추로 진하게 양념하여 매콤한 맛이 특징인 헝가리식 쇠고기와 야채 스튜이다. 헝가리어로는 구야시라고 한다. 먼저 소금에 절인 고기를 양파와 함께 볶은 후에 파프리카와 물을 부어 끓인다. 이후 마늘과 당근, 파슬리, 샐러리와 토마토를 넣고 다시 조리한다.

스페인 빠에야

파에야는 쌀과 고기, 해산물, 채소를 넣고 만든 스페인의 쌀요리로 사프란이 들어가 특유의 노란색을 띤다. 넓은 팬에 고기를 먼저 볶다가 양파, 토마토, 마늘 등을 넣어 볶은 후 물을 부어 끓기 시작하면 쌀과 사프란을 함께 넣어 만든다. 쌀을 팬에 얇게 펴서 바닥은 눌어붙게 하고 위는 질척하지 않게 조리한다.

스위스 퐁듀

퐁듀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치즈 요리이다. 빵, 고기,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썰어 긴 꼬챙이에 끼우고 치즈를 녹인 소스에 찍어 먹는다. 테이블 중앙에 냄비를 놓고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폴란드 피에로기

효모를 넣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껍질에 속재료를 넣어서 만든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보통 감자, 자우어크라우트, 다진 고기, 치즈, 과일이 들어간다. 여기에 뵈르 퐁뒤, 사워 크림, 튀긴 양파와 같은 토핑을 곁들이기도 한다.

Namhae

남해읍
보물섬 마늘&한우축제(6월)

남해 대표 특산물인 보물섬 마늘과 한우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 해풍을 맞고 자라 알싸한 향이 좋은 남해 마늘과 청정 환경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남해 한우는 남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고현갈화 갈화왕새우축제(8월)

맑고 푸른 남해 바다에서 자란 왕새우(흰다리새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께 흥겨운 축제의 향연을 선사한다. 남해의 새로운 별미로 각광받고 있는 흰다리새우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마련된 본 축제는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고현이순신순국공원
이순신 순국제전(11월)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장엄한 전사를 통해 끝끝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했던 이순신 장군의 순국지였던 남해군 관음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져 있는 드넓은 광장인 '이순신 공원'에서 격년제로 이순신 순국제전을 열고 있다. 다양한 이순신 관련 뮤지컬이나 공연 등이 함께 곁들여지는 문화축제이다.

미조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5월)

남해의 나폴리라 불리는 미조항은 멸치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남해 멸치 맛이 가장 좋은 5월에 개최한다. 멸치 즉석 경매, 멸치 젓갈 담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루 두 번 어부들의 멸치털이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 멸치요리도 맛볼 수 있다.

남해읍 보물섬 남해커피축제(10월)

보물섬바리스타협의회가 주최하여 남해실내체육관 뒤 남산공원 잔디밭에서 개최하는 본 축제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커피라는 아이템으로 남해군 홍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커피 무료 나눔 행사로 나눔의 삶이 살아 있는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고 커피로스팅 체험 및 라떼아트 시연 등 다양한 체험활동들과 함께 향기로운 음악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상주 상주은모래비치 섬머페스티벌(8월)

연중 남해가 가장 뜨거워지는 기간이다. 남해를 대표하는 해변 상주은모래비치에서 뮤직페스티벌과 EDM파티, 송림치맥파티, 해양레저 체험, 바다 위의 비치시네마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다. 힙&트렌디 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축제.

삼동
독일마을 맥주축제(10월)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모태로 한 축제. 2010년에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맥주 축제이다. 이색적인 독일문화를 체험하고, 정통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창선 창선고사리삼합축제(5월)

남해군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라난 고사리와 홍합과 바지락 삼합의 조화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싱싱한 먹거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그리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자연이 한 데 어우러진 보물섬 남해 창선에서 열리는 고사리 삼합축제에서 행복한 여행의 첫 장을 만들어보자!

Europe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8월 중순)

세계에서 온 100여 팀의 공연단이 공연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축제로 3주 동안 열린다. 1947년 2차대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시작되었다.

프랑스 니스 카니발(2월 중순 ~3월 초순)

700년이나 되는 역사가 있는 카니발로 가장 큰 볼거리는 봄이온 것을 축하하는 약 20대의 수레가 이끄는 퍼레이드다. 커다란 인형을 실은 수레가 나와 그해 축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많은 꽃으로 장식한 마차를 타고 꽃을 던지며 지나간다.

독일 옥토버페스트(9월 말~10월 초)

맥주의 원료가 되는 보리의 풍작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각 지방의 민족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커다란 맥주 통을 실은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다. 큰 텐트 안에서 모두 함께 신나게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1810년에 바이에른 황태자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맥주를 나누어 준 것이 축제의 시작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2월 중)

귀족의 무도회에서 썼을 것 같은 가면과 의상을 걸친 사람들이 노래하며 춤을 춘다. 신분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던 먼 옛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기고 모두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며 즐긴 것이 축제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다. 카니발의 마지막 주말에는 산 마르코 광장에서 가면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헝가리 부쇼축제(2월 하순)

부쇼 축제는 헝가리 최대의 축제이다. 부쇼는 탈을 쓰고 커다란 양털코트를 걸친 무서운 복장을 한사람들을 말한다. 옛날에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악마로 변장해 적을 놀라게 했고, 놀란 적들이 도망친 것으로부터 축제가 시작되었다. 큰소리를 내고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퍼레이드를 한다,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스페인 라 토마티나(08월 31일)

오전 11시에 시작 신호가 울리면 모두가 일제히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기 시작한다. 사람도 도로도 건물도 순식간에 뻘겋게 물들고, 도시 전체가 토마토로 뒤덮인다. 두 번째 신호가 울리면 토마토 던지기를 딱 멈춘다. 젊은이의 싸움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네덜란드 꽃축제 쾨켄호프 (3월말~5월 중순)

3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꽃축제인 튤립 축제가 열린다.축제가 열리는 쾨켄호프공원은 16세기에 백작부인 자코바 반 바이에렌이 소유하였던 쾨켄호프성 일대로서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같은 꽃들이 가득하다.

폴란드 보제 나로제니에 (12월 25일)

카톨릭식 크리스마스 축제에 폴란드의 풍습이 어우러진 독특한 크리스마스축제이다. 보제 나로제니에 전날에는 비길리아라는 만찬을 먹는다.

자암 김구 화전별곡

자암 김구가 남해 유배지에서 남긴 대표작인 「화전별곡(花田別曲)」으로 총 6장의 경기체가이다. 제1장은 화전의 경치를 신선의 섬으로 비유하였고. 제2장은 남해 향사와의 교우. 제3장은 연회의 즐거움. 제4장은 노래와 음악으로 즐기는 광경. 제5장은 술과 안주의 풍부함이 있는 경치. 제6장은 결락구(結落句)로서 서울보다는 남해에서의 삶에 대한 애환을 담고 있다.

서포 김만중 구운몽

서포 김만중은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함께 한국 3대 고전문학가이다. 구운몽은 현실주의적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끌어 가면서 은둔적인 선도사상도 곁들여 마지막에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부정하는 불교에 몰입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그 무대를 선계와 인간세계로 설정, 환상적인 반전을 꾀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거둔 점은 근대소설로 접근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서포 김만중 사씨남정기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여 인현왕후 민씨를 내쫓은 일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을 무대로 지은 목적소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소설은 평안도 선천 저작설과 남해 저작설이 대립하고 있는 구운몽과는 달리 모든 정황상 남해에서 지은 것이 확실하다. 인현왕후 복위와 자신의 해배(解配)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이 소설을 보고 숙종은 민씨를 복위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서포 김만중 서포만필

비판의 객관성 추구를 기본과제로 삼으면서 만필로서의 자유를 최대한 이용하여 관념의 허위를 비판하고 송강 정철의 가사를 굴원의 이소에 비교하는 등 한글로 쓴 문학을 극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詩)와 소설이나 산문에 대한 평론과 불가, 유가, 도가, 천문, 지리 산수 등에 대한 다양하고 해박한 내용이 많아 김만중의 편력과 박학다식함을 엿볼 수 있다. 하권은 남해에서 유배생활 중 완성했다는 사실이 저서에 나타나고 있다.

후송 유의양 남해문견록

후송 유의양(1718~?)은 남해에 귀양온 5개월 동안 남해를 두루 섭렵하면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한 기행문 「남해문견록」을 남겼다. 남해문견록은 남해의 생활상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장례와 혼인의 절차가 이상하여 이해하지 못할 점이 많다고 하면서 유교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문 유배기행문 가운데 한글로 된 최초의 작품으로 기행문학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천 남구만 약천집 :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로 유명한 남구만은 「약천집」에 남해의 망운산에 올라 고향땅에 대한 향수를, 금산에 올라 기암괴석의 선경에 취해 유배의 노래를 불렀다. 서포가 남해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린 데 비해 약천은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다.

소재 이이명 매부

소재 이이명은 서포 김만중이 남해에서 생을 마치자 남해로 이배(移配) 온 후 장인인 김만중의 적사에 들러 시들어가는 매화나무를 옮겨 심고 난 후 매부를 지어 칭송하였다.

태소 김용 남천잡록

태소 김용은 1771년(영조 47) 남해로 유배와서 「남천잡록」을 저술하였다. 조선문과방목 입격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사로 관직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시문을 통해 볼 때 고령에 남해로 귀양왔으며, 유배가 풀린 후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년간의 짧은 유배기간 동안 남해 향인들과 교유하면서 등금산, 홍문, 감로수, 하금산우우, 노인성, 노량충렬사 헌시 등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영국 동물농장(조지 오웰)

1945년 8월 17일에 출간된 소설이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지 오웰은 이 소설을 통해 스탈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패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오웰은 돼지들을 통해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등 초기 소련의 지도자들을 표현했으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 혁명을 풍자하는 알레고리(allegory)를 보여주었다. 오웰은 한때 농장에서 일한 경험에서 소설을 착안했다.

프랑스 어린왕자(앙투완 드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는 프랑스 공군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소설이다. 또한 동시에 생텍쥐페리의 유작이기도 하다. 동화와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으면서도 풍자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

독일 데미안(헤르만 헤세)

1919년에 초판이 나왔다.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상을 입은 싱클레어라는 청년의 수기(手記)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싱클레어가 연상(年上)의 친구인 데미안의 인도를 받아 정신착란상태를 벗어나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로지 내면(內面)의 길을 파고드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신곡(단테 알리기에리)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1308년부터 쓰고 죽기 1년 전인 1320년에 완성한 대표 서사시이다.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인류 문학사의 위대한 작품으로 널리 평가받는다.

폴란드 쿠오바디스(헨리크 시엔키에비치)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대표적 장편소설. 1세기의 로마에서의 고대적 세계관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투쟁이라는 흥미있는 역사적 대사건이 배경이다. 정의와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호소하여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의 운명에 희망의 불길을 밝혀준 애국적 역사소설이다. 이 작품으로 19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스페인 돈키호테(미겔 데 세르반테스)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출판한 소설. 전세계 문학사를 대표하는 고전 중 하나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을 그 당시 에스파냐에 크게 유행했던 기사도 이야기의 패러디를 쓰려고 했었으나 감흥이 솟는 대로 일정한 계획도 없이 써 나가는 동안, 처음 의도한 바를 잊고 주인공 돈키호테와 종자(從者)인 산초 판사의 성격을 창조한다는 새로운 주제에 열중하여 드디어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대작이 되었다.

네덜란드 안네의 일기(안네 프랑크)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횡행하던 시절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네덜란드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가상의 친구인 키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남긴 일기.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 (힌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안데르센이 쓴 동화전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전집은 《동화와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화 이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Namhae

남해읍 유배문학관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유배 문학관으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공간이다. 조선 시대 유배지였던 남해의 문화와 역사로 가득 차있다. 주제별 전시관을 통해 유배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다양한 체험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삼동 바람흔적미술관

치열했던 여름밤의 추억을 홀로 천천히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실려 보내는 것 같은 외딴곳의 미술관 하나, 내산저수지를 벗 삼은 바람흔적미술관이다. 미술관을 둘러싼 그 모든 돌 하나, 나무 하나, 오솔길 하나 곱지 않은 게 없어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오고 다시 찾지 않기는 어려운 곳이다.

동창선 뮤지엄남해

뮤지엄남해는 남해군 동창선에 있는 폐교를 개조하여 재탄생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 시각예술, 조형,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개최하고, 레지던스 작가들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고현 이순신영상관

이순신영상관은 138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내 최초의 돔형 입체 영상관이다. 벽면과 지붕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평면 스크린에서의 입체 영상에 비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1598년 11월 19일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였던 노량해전의 격전을 입체영상으로 제작해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남면평산 바래길작은미술관

주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던 보건진료소가 2015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은 바래길 1코스 다랭이 지겟길의 출발점에 위치해 트레킹을 시작하는 탐방객들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에게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동 파독전시관

'파독전시관'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가 타임 터널로 제시되고, 지하 1200m 갱도에 들어설 때마다 느꼈을 생의 절박함을 재현한 통로를 당시 이들이 남긴 눈물의 메시지와 함께 따라 걸어나오면 파독광부가 광산에서 사용했던 작업도구와 작업복과 더불어 파독간호사의 병원생활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이동 길현미술관

폐교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공간. 작품 전시 공간과 리본공예, 도자기 만들기 등 각종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현미술관 운동장은 캠핑장이기도 하다. 약 30개의 사이트가 있고, 전기와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이용이 가능하다.

설천 남해각

1975년에 건립된 이후 남해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이자 휴게공간이였다. 지역 명소였지만 오랜기간 방치되었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남해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2021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지하는 관광플랫폼으로, 지상 1층은 남해각과 남해대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공간으로, 지상 2층은 유럽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urope

영국 대영박물관

영국 런던에 있으며, 방대한 양의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 박물관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 공공 박물관으로 개관 이래로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 문명권의 역사 문화를 망라하는 800만 점 이상의 유물과 민속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며,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술관이다. 파리 중심가 1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건물은 과거에는 루브르궁전 이였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일 페르가몬박물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자랑하는 박물관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으로 유럽 제일의 중근동 역사와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이탈리아 바티칸미술관

바티칸 미술관은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필두로, 바티칸시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궁전, 미술관, 박물관을 전부 지칭한다. 약 1,400실에 이집트, 그리스, 아시리아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각품, 명화,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헝가리 헝가리국립박물관

유럽 최초의 국립 박물관이자 헝가리 최대의 박물관으로 헝가리에서 발견된 5만 년 된 두개골, 베토벤이 리스트에게 물려준 피아노, 리스트의 황금 지휘봉, 역대 헝가리 왕의 왕관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헝가리인'으로 추앙받는 세체니의 수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미술관

구겐하임재단은 미국 철강계의 거물 솔로몬 구겐하임이 직접 수집한 현대 미술작품들을 보관·연구·전시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20세기 후반 4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서유럽에서 활동한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뛰어난 작가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네덜란드 반고흐미술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19세기 신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있다. 1973년에 개관하였으며 반고흐의 예술가로서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 전시를 진행하고있다.

폴란드 쇼팽박물관

폴란드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쇼팽의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며 체험거리가 많은 박물관으로 쇼팽의 친필 악보, 편지, 초상화,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와 가구, 머리카락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한다.

설천 남해대교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 육지와 단절되어 있던 남해도를 처음으로 이어준 교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상주 금산보리암

온갖 전설을 담은 기암괴석이 금강산을 빼어 닮았다. 하여 소금강 혹은 남해 금강이라 불린다. 또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보리암은 금산의 기암절벽 영봉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이지만, 금산 일출은 3년 동안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하니 날씨 컨디션도 잘 살피어야 한다.

창선 창선·삼천포대교

총연장 3.4km에 이르는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 최초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남해 창선도와 삼천포 사이 3개의 섬을 연결하는 5개의 교량이 다리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관광명소이다.

미조 설리스카이워크

최근에 문을 연 핫플레이스 전망대로 설리해수욕장 뒤편 언덕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전망대 자체의 형태와 규모가 어마어마해 저 멀리 상주 쪽에서도 눈에 띌 정도이다. 일명 '하늘 그네'라 불리는 스카이워크 그네는 높이 38m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명물, '발리섬의 그네'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하늘과 맞닿고 발아래로는 바다로 풍덩 빠져 들것만 같은 극강의 아찔함을 보여준다.

상주 상주은모래비치

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 모양으로 감싸고 있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도 따뜻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일품이다. 은가루처럼 밝게 반짝이는 백사장은 비단과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하고, 바닷물은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비단결 같은 모래는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 사이로 흘러 간지럼을 탄다.

삼동 물미해안전망대

대한민국 최남단 남해를 아름답게 비추는 등대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내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초호화 고급 크루즈를 탄 듯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60도 파노라마 바다 조망을 자랑하고 있다. 유리로 된 하늘길을 직접 걸어보고, 절벽 위 수려한 남해바다 조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삼동 물건방조어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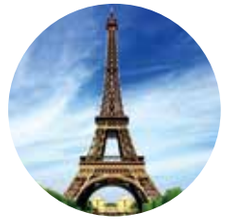
2천여 그루의 방풍림으로 조성된 울창한 수림이 초승달 모양을 그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숲과 어우러진 몽돌 해안은 남해 바다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독특함을 자랑한다. 방조어부림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족 죽방렴

대나무 발을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해 V자로 벌려두는 원시 어업인 죽방렴은 시속 13km의 남해 바다의 빠른 유속을 이용한 포획방식이다. 죽방렴에서 잡은 멸치는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이 살아 있어 전국 최상품으로 꼽힌다.

영국 빅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 끝에 있는 시계탑의 별칭으로, 1859년에 세워졌다.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로, 영국 의회는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0주년에 맞춰 해당 명칭으로 정한 바 있다.



프랑스 에펠탑

파리의 만국 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세운 높은 철탑으로 건축 당시에는 우아한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며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독일 베를린의 중심가 파리저 광장에 있는 건축물로 운터덴린덴로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독일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으며 독일 통일과 함께 독일과 베를린의 상징이 됐다.

이탈리아 콜로세움

고대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공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이 곳 바닥에 물을 채우고 배를 띄워 가상바다전투를 벌이거나, 검투사들의 시합을 열었다고 한다.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던 검투사들은 전쟁 포로들로 시합에서 일정한 승리를 거두면 자유의 신분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그리스 파르테논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다. 기원전 448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의 설계로 1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이다

스페인 사그리다파밀리아 성당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가톨릭 대성전으로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이자 그가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으로,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4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건축 중이다.

헝가리 어부의 요새

마차시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축조된 성곽이다. 원래 중세 때부터 이 부근에 어부들이 많이 살았으며 큰 어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보는 페스트 지구의 전경이 아름답다.

룩셈부르크 아돌프다리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치교로, 아돌프 대공작이 통치하던 시기인 1889~1903년에 건설되었고, 재료는 석재를 사용하였다.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치교였으므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삼동(독일마을) 환상의 커플

촬영장소 :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 스포츠파크, 독일마을, 물건마을, 해안도로 등
방송일시 : 2006.10.14. ~ 12.03.(MBC 주말 특별기획 16부작)
출연 : 한예슬, 오지호, 김성민, 박한별 등
매사에 안하무인격인 안나 조(한예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면서 가난하고 뻔뻔한 마초인 종합건축 설계업자 장철수(오지호)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촬영의 주무대는 삼동면 물건리의 세트장과 독일마을이고, 남해읍내 대형 주차장 등 현대적 감각으로 접목하여 전통적인 멋과 편리함을 갖춘 전통시장과 남해군청 앞,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삼동(봉화) 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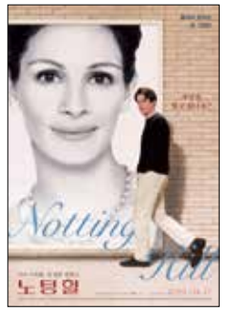
촬영장소 : 창선 소벽마을, 삼동 영지봉화전도마을, 이동 석평마을 등
개봉일시 : 2002.11.08.
출연 : 김윤진, 이종원, 계성용, 김민경, 윤다경 등
서른의 전업주부 마흔의 집에 찾아온 빨간 스웨터의 여자. 그녀가 입을 열어 마흔의 남편을 "오빠"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 몇 마디로 마흔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크리스마스 오후의 끔찍한 테러였다. 고요한 나비 마을의 평화로움에 도취되어 마흔 가족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 그날 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천(양떼목장) 여신강림

촬영장소 : 설천 양떼목장, 상주은모래비치, 설리스카이워크 등
방송일시 : 2020.12.09. ~ 2021.02.04.(종영)
출연 : 차은우, 문가영, 황인엽 등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문가영 분)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차은우 분)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

미조(천하마을) 상두야 학교가자

촬영장소 : 미조면 천하마을
방송일시 : 2003.09.15. ~ 2003.11.04.(종영)
출연 : 비, 공효진, 홍수현, 이동건, 신구 등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소년원에 다녀온 전과자 출신으로 일곱살짜리 아이를 둔 미혼부 상두(정지훈 분)와 그러한 상두를 15년간 한결같이 사랑하며 제비족 상두를 교화시키는 수학 선생 은환(공효진 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영국 노팅힐

개봉일시 : 1999.07.03.
출연 :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랜트
세계적인 스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애나 스콧' 런던의 노팅 힐에서 여행 전문 서점을 운영하는 남자 '윌리엄 태커' 아주 평범한 사랑을 기다리는 그녀와 너무 특별한 사랑이 두려운 그의 꿈 같은 로맨스가 다시, 시작된다! 여기 노팅 힐에서…

프랑스 퐁네프의 연인들

개봉일시 : 1992.04.18.
출연 : 줄리엣 비노쉬(미셸), 드니 라방(알렉스)
파리 센느강의 아홉 번째 다리 퐁네프. 사랑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그림을 그리는 여자 '미셸', 폐쇄된 퐁네프 다리 위에서 처음 만난 그녀가 삶의 전부인 남자 '알렉스'. 마치 내일이 없는 듯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사랑한 두 사람. 한 때 서로가 전부였던 그들은 3년 뒤, 크리스마스에 퐁네프의 다리에서 재회하기로 하는데...

독일 베를린 천사의 시

개봉일시 : 1993.05.15.
출연 : 브루노 간츠(다미엘), 솔베이그 도마르틴(마리온),오토 샌더(카시엘 역)
베를린에 내려온 두 천사, 다미엘과 카시엘은 어린 아이의 눈에만 보일 뿐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미엘과 카시엘은 베를린의 거리를 순회하며 병들고 가난에 찌든 노인이나 상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친다. 하지만 천사들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커피나 담배 맛을, 부드러운 여체를 느낄 수 없다. 그러던 어느날 다미엘은 서커스단에서 공중그 네를 타는 마리온을 보곤...

이탈리아 시네마천국

개봉일시 : 1990.07.07.
출연 : 마르코 레오나르디(청년 살바토레), 필립 느와레(알프레도), 자끄 페렝(중년 살바토레 역), 살바토레 카스치오(소년 살바토레 역), 브리지트 포시(중년 엘레나 역)
이탈리아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과 코미디의 전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영화와 유년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가진 주인공 살바토레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우정이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오리지널 편집본(155분) 외에도 인터내셔널 버전(122분)과 2002년의 디렉터스 컷(174분)이 존재한다.

남면(다랭이마을) 맨발의 기봉이

촬영장소 :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일대
개봉일시 : 2006.04.26.
출연 : 신현준, 임하룡, 김수미 등
충남 서산 어느 시골 마을에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엄기봉(41) 씨가 어렸을 적 키워준 엄마의 봉양과 행복을 위해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마라톤에 도전, 입상하는 등 순수한 웃음을 지닌 맨발의 기봉 씨의 생활을 그린 이야기. 드라마 촬영장은 남해군 남면으로 주위에는 천혜의 풍광이 어우러진 가천 다랭이 마을, 암수바위 등의 관광 명소가 있다. 남해군 남해읍 시가지는 공설운동장과 인접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실내체육관 등의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천연 잔디로 조성된 공설운동장은 많은 체육행사가 진행된다.

삼동(물건)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

촬영장소 :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 일대
개봉일시 : 2007.08.22.
출연 : 정준호, 김원희, 고은아 등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영화로, 손녀를 찾아 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늙은 노인의 의뢰를 받은 승원(정준호)은 순수하지만 철없이 보이는 혜주(김원희), 똑똑하지만 반항끼 많은 그녀의 딸 옥희(고은아)가 있는 사랑방에 머물게 되는데...
물건방조어부림으로 유명한 삼동면 물건마을의 촬영 세트장, 남해읍 사거리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2022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 헤어질 결심

촬영장소 : 남해군 남면, 삼동면 일원 등
개봉일시 : 2022. 6. 29.
출연 : 박해일, 탕웨이, 이정현, 박용우 등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은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와 마주하게 된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서래'.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서래'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해준'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수사를 통해 '서래'를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칸이 사랑하는 남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로 2021년 3월 남해에서도 일부 촬영이 이루어졌다.

삼동(물건) 인어이야기

촬영장소 : 삼동면 물건마을, 해안도로, 상주 은모래비치, 남해대교, 창선·삼천포대교 등
방송일시 : 2007.01.17. ~ 2007.01.18.(4부작)
출연 : 서영희, 김남진 등
미스터리 멜로물로 한 인간의 살인(과실치사)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운명적인 사랑.
종내는 살인이라는 범죄도 끌어안는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남해군 남해읍 사거리, 물건방조어부림, 미조, 상주 금포 등지에서 촬영했다.

스페인 오픈유어아이즈

개봉일시 : 1999.01.16
출연 : 에두아르도 노리에가(세자르), 페넬로페 크루즈(소피아), 체트 레라(안토니오), 펠레 마르티네즈(펠라요), 나즈와 님리(누리아)
캐머론 크로우와 탐 크루즈가 리메이크한 「바닐라 스카이」(2001)의 원작 영화로 더 유명하지만 이 독창적인 걸작이야말로 꼭 봐야 할 영화다. 편집증적인 퍼즐 같은 구성으로 한 층씩 벗겨나가면서 정체성을 하나의 행위예술이나 가상현실로 제시하며 시간과 현실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는, 적어도 두 번은 보아야 이해가 되는 어두운 영화.

폴란드 피아니스트

개봉일시 : 2003.01.03
출연 : 애드리언 브로디(블라디슬로프 스필만), 토마스 크레취만(빌름 호젠펠트)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피아니스트 브와디스와프 슈필만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로만 폴란스키의 제2차 세계 대전, 홀로코스트 영화. 폴란드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유대인 가족이 나치의 침공에 의해 해체되는 모습을 그렸다. 영화는 2002년 제75회 아카데미 감독상,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색상을 수상했다.
200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헝가리 글루미선데이

개봉일시 : 2000.10.21
출연 : 조아킴 크롤(자보), 스테파노 디오니시(안드라스), 벤 벡커(한스), 에리카 마로잔(일로나)
'우울한 일요일'을 뜻하는 글루미 선데이는 1933년 헝가리에서 발표된 노래의 제목으로, 전세계에서 수십 명을 자살하게 함으로써 '자살의 찬가', '자살의 송가'로 알려져 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자보와 그의 연인 일로나, 〈글루미 선데이〉의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안드라스, 독일인 한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운명을 그린 영화이다.

덴마크 대니쉬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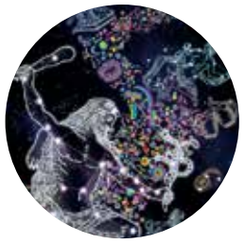
개봉일시 : 2016.02.17.
출연 : 에디 레드메인(에이나르 베게너 / 릴리 엘베 역), 알리시아 비칸데르(게르다 베게너 역)
앰버 허드(울라 폴슨)
데이비드 이버쇼프가 2000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전기 드라마 영화이며 이 영화는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덴마크 화가, 에이나르 베게너(릴리 엘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맥주 Beer

Namhae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광부의 노래

스타우트 / 알콜 : 5.0% / 쓴맛 34
부드럽고 묵직한 풍미를 가진 스타우트.
3년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남해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이어온
파독광부의 애환을 담은 맥주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은하수

아메리칸에일 / 알콜 : 5.5% / 쓴맛 40
다양한 홉을 사용하여 꽃 향과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 열대과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맥주.
홉의 풍부한 아로마를 주연배우로 내세운 깔끔한
아메리칸 에일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달로망

페일에일 / 알콜 : 5.2% / 쓴맛 40
상큼한 시트러스향과 쌈싸름한 끝 맛,
최상급 몰트의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돋보이는 풀바디 페일에일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오늘라거

독일식 헬레스 / 알콜 : 4.1% / 쓴맛 18
100% 독일 맥아와 홉을 사용! 쓴 맛과 알콜 도수를 줄여
다양한 안주에 부담없이 마시기 편하면서, 바디감은 살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라거 맥주

내코나매크래프트비어
남해유자에일

남해수제맥주연구소에서 시그니처맥주로 탄생한
남해유자에일. 특허기술을 사용해 남해 유자의 향과
맛이 가득한 색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완벽한인생 브루어리
남해

백년초에일 / 알콜 : 4.8% / 쓴맛 13
남해산 백년초 열매를 넣어 분홍빛 저녁노을의
색감을 담은 맥주. 풍부한 탄산감과 청량감이
돋보이는 상큼하고 부드러운 에일

내코나매크래프트비어
흑마늘스타우트

커피향이 진한 스타우트에 흑마늘을
넣어 발효한 남해맥주.

내코나매크래프트비어
남해유자새콤설레임

맥주를 발효하여 의도적으로
신맛을 만들어 레몬슈스와 같이
새콤한 맛이 특징인 샤워비어에
남해유자를 넣어 상큼함을
더했다.

Europe

영국 **칼링**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의 컵대회의
공식스폰서인 칼링, 칼링컵이라는
대회를 치르는 까닭에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있는 브랜드이다.

아일랜드 **기네스**

기네스의 양조가들이 9,000년 임대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200년의 획기적인 양조사의 길을 만든 아서 기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든 맥주이다. 커피, 맥아향과 어우러진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맥아가 로스팅된
보리의 기저에 풍부한 멋을 더해 쌉싸름한 맛 뒤에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

프랑스 **크로넨버그**

1952년 프랑스 맥주회사 크로넨버그(Kronenbourg)에서
출시한 하면발효 방식의 페일 라거 맥주이다. 색은 투명한
황금색이고, 처음 맥주를 열었을 때 상쾌한 플로럴 향,
꿀 향, 바나나, 배, 귤의 과일 향이 느껴지며, 몰트와 홉의
아로마가 섬세하게 배합되어 입 안에서 단 맛과 씁쓸함의
균형을 맞춘다.

독일 **외팅어**

1731년에 바이에른의 소도시 외팅엔에 문을 연
양조장이 기원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맥주 양조에
주력하는 양조장 여러 군데를 동시에 운영하여 독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맥주를 생산하며 독일내
판매량1위의 맥주브랜드이다.

네덜란드 **하이네켄**

1864년 창업한 하이네켄 맥주 회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맥주 회사다. 현재 약 65개 나라에서
130개가 넘는 맥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170개 이상의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하이네켄
맥주 회사의 대표적인 맥주는 하이네켄과 암스텔.
하이네켄은 현재 약 40개 나라의 양조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벨기에 **호가든**

1445년 벨기에 호가든 지역에서 처음
양조되었고, 맥주 저장 통의 윗부분에서 효모를
발효시키는 상면발효맥주로 제조된 벨기에의
대표적인 에일 맥주이다. 오렌지 껍질이
첨가되어 달콤하고 산뜻한 과일 향을 내고
효모가 가라앉아 있어 흔들어 먹으면 더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체코 **필스너 우르켈**

1842년 설립된 플젠스키 프라즈로이
맥주 회사에서 생산하는 고전적인
체코 필스너로서 투명한 황금색을
지니고 있다. 몰트와 홉의 맛이
조화로운 맥주다. 스파이시한
아로마가 부드러운 보리몰트의
플레이버와 균형을 이룬다.

스페인 **모리츠**

모리츠는 스페인바르셀로나 소재의
양조장으로 루이스모리츠라는 인물에
의해 19세기 중반에 설립되었다.
모리츠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페일라거
필스너계에 걸치는 맥주로 체코의 홉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설천왕지 벚꽃

남해 충렬사에서 설천 모천마을로 이어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 설천 노량 왕지 벚꽃길. 봄이 오면 만발한 벚꽃으로 터널이 만들어져 상춘객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아름다운 남해대교와 코발트 빛 바다가 어우러져 봄의 완연한 기운에 취하게 된다.

망운산 철쭉

산림청 "대한민국 야생화 100대 명소"로 선정된 망운산 철쭉군락지는 남해에서 제일 높은 산의 정상 일대 약 1.5km구간에 조성되어 있다. 비록 다른 철쭉 명산보다 규모는 작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매력이 있다.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분홍빛 철쭉들이 만개해 한 폭의 그림처럼 장관을 이루며, 붉은 노을이 잔잔한 광양만의 하늘과 바다에 드리워지는 석양 풍경은 더없이 아름답다.

상주 두모

(봄)유채꽃 (가을) 메밀꽃, (6월)꼬끼리마늘꽃

두모마을은 노령화로 인해 마을 입구 다랑논이 휴경지로 변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마을주민이 합심하여 정리를 하고 꽃씨를 뿌렸다. 다랑논에 뿌려진 씨로 이제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피기 시작했다. 입구에서부터 30분 가량을 걸으며 꽃길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가운데 지점부터는 먼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꽃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포토존도 만들어 내며, 꽃길 끝에 위치한 두꺼비 바위는 다산과 합격, 그리고 건강을 지켜준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보라색의 꼬끼리 마늘꽃이 인생 사진 스팟으로 아주 핫하다. 두모마을에는 계절마다 꽃들이 다르게 심어지니깐 꼭 계절을 따지지 않고 가도 좋다.

이동장평소류지 튤립

매년 4월이면 이동면 농업기술센터 건너편의 자그마한 장평소류지에는 향긋한 튤립이 봄나들이객들을 유혹한다. 형형색색의 튤립과 노란색의 유채꽃이 어우러져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저수지가 배경으로 있어 더욱 운치가 있어 보인다.

이동난음 치자꽃

남해군의 군화로 남해군 야산 일대에 부분적으로 자생하며, 특히 이동면 난음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상록, 활엽, 관목으로 내한성에 약하고 내열성에 강하며 군민의 청렴 결백함과 향토애가 강한 점이 흡사하여 군화로 지정하였다.

이동앵강 꽃무릇

앵강다숲은 원래 군부대 부지였지만 2007년부터 주민에게 개방됐다. 매년 9월의 앵강다숲은 붉은색의 꽃무릇 천지가 된다. 잎사귀도 없이 붉은 꽃을 피우고 당신을 기다린다.

영국 장미

장미는 영국의 국화이다. 장미가 영국의 국화가 된 것은 1455년부터 1485년 사이에 영국의 랭카스터 가와 요크 가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장미전쟁 이후이며, 그 때 두 가문의 문장이었던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합해 새로운 문장인 튜더 로즈를 만들었다. 튜더 로즈는 지금도 영국 왕실의 문장으로 남아있으며, 장미가 영국의 국화가 된 기원이기도 하다.

프랑스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프랑스의 국화로 유명한 꽃이며 색깔 마다 다른 꽃말이 존재한다. 아이리스는 꽃이 피기 전 봉오리를 맺은 모습이 글씨를 쓰는 붓을 닮았다고 해서 붓꽃이라고도 불리며 서양에서는 칼모양을 닮은 잎 때문에 용감한 기사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센토레아

센토레아는 옛부터 카이저 황제의 꽃이라 불리며 독일의 국화로 알려져 있다. 꽃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하여 수레국화라고도 불린다.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지만 온실에서 가꾼 것은 봄에도 핀다.

이탈리아 데이지

이탈리아 국화인 데이지는 유럽 서부가 원산지이고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 살이 풀이다. 데이지 꽃은 밤에는 오므라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데이지는 태양이 뜨면 고개를 들고 태양이 넘어가면 고개를 내린다고 하여 '태양의 눈'이라고 불린다.

스위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는 고귀한 흰 빛이란 뜻이며, 알프스의 영원한 꽃으로서 유명하다. 별처럼 생긴 벨벳 같은 하얀 꽃은 '순수'의 상징으로 삼아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산악 단체, 등산, 고산 등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네덜란드/헝가리 튤립

튤립은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로써 남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16세기 후반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색적인 모양이 관심을 끌며 귀족이나 대상인 사이에 크게 유행하여 순식간에 귀족의 상징이 되었다.

스페인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아우구스티누스제 시대에 스페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재배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인은 이 꽃을 제우스에게 바쳤다고 한다. 화관이나 화환을 만드는데 빠뜨릴 수 없는 식물로, 카네이션이라는 이름은 화관, 화환을 의미하는 라틴어 corona에서 유래한다.

폴란드 팬지

폴란드의 국화인 팬지는 봄이면 거리에서 화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이고 삼색제비꽃이라고도 하고 비올라라고도 불리는 꽃이다. 제비꽃 답게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라고 번식력도 좋아 길가나 관공서 등지에서 가장 많이 심는 관상용 꽃이기도 하다.

서점&도서관

Library Bookstore

Namhae

남해읍 화전도서관

2009년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남해군청에서 개관하였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개개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과 건전한 군민의 문화 이용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미소와 작은 기쁨이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남해읍 남해도서관

1972년 교육청에서 개관하여 화전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 남해 유일의 도서관이였다. 사람, 책, 미래의 중심에 있으며, 좋은 자료와 정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남해읍 대한서림

남해읍 중심가에 위치하여 오랜기간 남해군민들의 책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던 곳. 정통스타일의 서점으로 현재도 학생들의 교재와 참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면 스테이위드북

#책과김밥 #책과커피 #독서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동네책방이다.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책과 김밥은 사랑방같이 다소곳한 내부 인테리어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묘한 매력을 갖게 한다. 간단한 굿즈와 엽서 등 소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 돌아보는 재미가 있다. 계란국과 함께 나오는 뚱뚱이 김밥은 꼭 먹어보자.

남면 이터널저니

아난티가 있는 곳에는 이터널저니가 있다. 여행과 휴식, 영감이 공존하는 문화예술공간. 개성 넘치는 8,000여 권의 책들과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키즈 섹션. 여기에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이국적인 요리까지 한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남해로 여행을 떠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난티&이터널저니가 아닐까.

남면 남해산책

'살아있는 책', '인생을 산책하듯이 살자', "내돈내고 내가 산책" 등의 의미가 담긴 책방이자 출판사로 문학위주의 책을 취급한다.

삼동 아마도책방

서점 지기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남해 독립서점. 엄선된 도서들 앞에는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깨알 같은 후기가 눈길을 끈다. 여행 중 편안히 들러 독서하며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서점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니 참고하자.

남면 B급상점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편집숍. 대로에서 상점까지 가는 길도 인도에 파란색으로 프린트된 화살표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 책과 인테리어 소품, 남해 기념품 등 다양한 소품들이 상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특색 있는 것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천들.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의 센스와 감각을 엿볼 수 있다.

Europe

영국 런던 헤이우드 힐 서점

버킹검 궁전 근처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서점이다. 1940년대 후반 런던 지식인들은 이 서점에 모여 책을 읽고 정책토론을 하거나 국가의 미래를 논했다. 2~3평이 채 되지 않은 곳에 클래식한 가구, 아기자기한 조명, 이곳은 서점이라기보다는 작은 아지트와 같은 곳이다.

독일 베를린 시바니 광장 아치 서점

독일의 베를린 사비니 광장의 아치 서점은 주차장으로나 쓰일 고가철도 밑에 서점이 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서점으로 아이디어가 빛나는 곳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알타이어 서점

알타이어 서점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오래된서점으로 여행 서점으로 유명하다. 500종이 넘는 다양한 책이 가득한데 그 중 관심가는 분야로 가서 둘러보면 나무로 된 서가 사이사이에 다양한 굿즈들이 많아서 여행객들이 선물을 사기에도 좋다.

프랑스 파리 오귀스트 블레조 서점

센 강 우안의 우아한지역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서점이다. 품격이 엿보이는 블레조 서점에 들어서면 짙은 고동색가구와 부드럽게 반사되는 빛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곳곳에 진열된 기품있는 문학책과 화집이 눈길을 끄는 곳이다.

스위스 취리히 베어 서점

다양한 출판사에서 내놓은 다채로운 고양이 그림과 고양이 달력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는 동화같은 곳이다. 포크모양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하얀색의 서가와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실내장식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어 인상적인 새로운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트로피슴 서점

브뤼셀 센트럴 쇼핑센터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비밀의 서점으로 벨기에에서 가장 아름다운서점이다. 문학과 인문학, 예술서적으로 가득한 빛나는 서점내부는 박물관이나 벨기에 왕실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곳은 현재 30여 명의 직원이 8만 여종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셀레시즈도미니크 서점

700년 건축사와 더불어 고딕교회의 견고한 벽체가 현대 건축의 기능성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경건한 서점! 철골구조물의 3층에 올라가면 아래로는 교회의 기다란 실내가 한눈에 들어오며 위로는 천정벽화와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곳이다.

오스트리아 빈 부르크페어락 고서점

희귀본과 절판도서를 취급하는 빈부르크페어락 고서점은 역사적 요소들을 보존하면서 신중하게 새로이 단장해 왔다. 값비싼 희귀본이 많은탓에 드나들 때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있다.

Namhae

삼동면 지족 구거리

아기자기하고 레트로 감성이 물씬나는 거리. 멸치쌈밥집이 몰려 있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색다르고 재미있는 공간들이 나타난다. 독립서점, 소품가게, 꽃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곳들이 모여 있어 남해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서면 장항숲

해변을 따라 조성된 방풍림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사진찍기 너무나 이쁜 구석구석 반짝이는 곳이다. 그냥 보기에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지만 조금씩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하나둘씩 생겨난 다채로운 매력의 카페와 숍들은 여행자들의 입소문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남해읍 남해읍 청년거리

예부터 마을을 지키고 있는 회나무 한 그루를 따라 이어진 청년거리. 옛 동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그 위에 새로운 문화를 덧입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퓨전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수제 맥주 전문점, 인테리어 소품점 등이 하나둘씩 청년거리를 메우고 있다.

미조면 미조항

미조항은 남해의 맛집들이 대거 포진한 곳이다. 항구에 세워진 미조항 음식특구 안내판을 따라 미식여행을 떠나보자. 갈치회와 멸치 쌈밥은 꼭 맛보기를 추천한다. 인근에 있는 최영장군의 사당 무민사와 천연기념물 제29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스페이스 미조에서 문화예술의 은은한 불빛을 느껴보자.

남해읍 남해전통시장

청정 바다에서 잡아 올린 죽방멸치에서부터 전복, 왕새우,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 남해의 차가운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마늘과 보물초(남해시금치), 창선고사리, 그리고 남해의 자랑인 남해유자까지. 여기에 신선한 회까지 바로 포장 가능하고 시장 안쪽에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최근 관광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더욱 핫하고 젊게 변하고 있다.

남해읍 남해청년센터 바라

남해청년센터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남해의 청년들을 위한 둥지이다. 이곳에서는 취·창업, 문화, 복지, 주거, 교육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이자 청년들이 편하게 서로 만나고 공감하고 고민하는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남해청년센터는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한다.

서면&삼동 돌창고 프로젝트

마을 단위 양곡과 비료를 저장하는 공동 창고로 쓰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돌창고는 기능이 쇠퇴하고 하나둘씩 방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변화를 선택한 공간은 다시 태어났다. 돌창고 프로젝트로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사랑방으로 재창조되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공간의 추억을 안기고 있다.

남해읍 경남도립 남해대학

전국 국·공립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취업사관전문대학으로 관광·ICT·해양플랜트·항공 등 경남전략사업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남해읍 사거리 아래부터 대학 입구까지 힙한 카페와 레스토랑, 주점 등이 자리잡고 있는 핫플레이스의 중심이다. 매년 5월에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인 한울대동제가 개최된다.

Europe

독일 베를린 미테 지구

베를린의 뛰는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테 지구는 개성 있는 상점들과 갤러리,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가득한 베를린의 핫플레이스. 통일 후 서독과 동독이 만나는 곳이자 말 그대로 베를린의 중앙을 지칭하는 곳이다. 수많은 박물관과 주요 관광명소가 몰려 있기도 하지만, 맛집들과 멋진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기에도 제격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

조용한 뒷골목 같은 동네지만 피카소 박물관 등 파리의 감성 넘치는 트렌드와 힙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멀티샵, 카페, 바들이 위치해 있다. 지금 당장 내 집에 놓고 싶은 인테리어 용품이나 내 가방 속에 넣고 싶은 아이디어 소품, 파리의 멋이 느껴지는 의류 등을 생각보다 착한 가격으로 득템 할 확률이 높은 쇼핑 명소이다.

영국 런던 쇼디치

힙한 분위기를 간직한 쇼디치는 런던에서 가장 빨리 변화하고 있는 곳. 핫 한 트렌드를 느끼고 젊은 층이 즐기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런던 힙스터들의 성지로 GD의 삐닥하게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런던의 명소이다. 쇼핑과 카페 그리고 펍 세가지 모두 즐길 수 있으며 빈티지와 디자인 상점이 많아 볼거리도 많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나인 스트리트

암스테르다머가 애정하는 쇼핑 스팟 나인 스트리트. 9개의 작은 골목에 트렌디한 상점과 맛집이 오밀조밀 모여있으니 사람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는 곳이다. 개방적인 유럽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암스테르담에서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내 인생의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 로마 트라스테베레

트라스테베레는 아침, 점심, 저녁, 밤 풍경이 모두 다르다. 아침에는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커피 향이 감돌고, 점심에는 삼청동처럼 잔잔한 활기가 느껴진다.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요리 냄새가 나고, 밤이 되면 홍대처럼 시끌벅적해진다. 가능하다면 하루를 온전히 트라스테베레에서 즐겁고 마음 편하게 지내보라고 권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그라시아 지구는 바르셀로나의 주요 관광지와 멀지 않은 곳임에도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 여행자를 많이 보지 못한다. 그라시아는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 동네이다. 서민적인 골목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반할 것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치거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가로 뵈뢰슈머르티 광장부터 중앙시장(그레이트 마켓홀)까지 이어지는 골목에 각종 상점,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이 가득한 곳이다. 서울의 홍대나 명동 같은 곳으로 산책하듯이 걸으며 즐기기 좋은 이쁜 거리이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로바 구시가지의 동상들

브라티슬라바의 한가지 재미가 조각상 찾기이다. 다른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볼거리가 많지 않은 브라티슬라바는 도시 곳곳에 조각상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하고 있다. 특히 추밀(Cumil)이라는 맨홀 동상이 유명하다.

MBTI TRIP

재미로 보는 남해의

MBTI 유형별 추천 여행지

**요즘은 MBTI가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었다.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여행지 중
어디에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당신의 MBTI 유형에 맞는
추천 여행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ISTJ

완벽한 계획아래 보장된 즐거움!

시간 관리나 일정 관리에 능숙하고 약속이 있다면 미리 길 찾기 앱을 검색해서 모든 경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당신.
당신에겐 여행도 헛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계획된 여행, 보장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ISTJ에겐 원통형 구조로 360도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설리스카이워크 추천!

설리스카이워크

국내 최초 '비대칭형 캔틸레버 교량'으로 지어진 스카이워크는 약 36m 높이에 폭 4.5m, 총길이 79m의 구조물로 되어있다. 스카이워크 끝부분은 하단이 유리로 되어있어 아찔한 해안절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스카이워크 유리 한 장의 폭은 전국에서 가장 넓으며 유리의 경우 12mm 판을 3중으로 접합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위치 미조면 송정리 1029-13번지 일원
문의 070-4231-1117

ISFJ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전통의 가치를 따르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변화를 어려워하고 헌신적인 당신은 여행 중 친구끼리 싸움이 나면 제일 먼저 말리고 들 타입. 여행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 시대의 보살형 인간인 ISFJ에겐 금산의 온갖 기이한 암석과 푸르른 남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절 보리암 추천!

금산보리암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조선 왕조를 열었다는 금산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보리암은 금산의 온갖 기이한 암석과 푸르른 남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절이다. 경내에는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대 바위가 눈길을 끌며, 부근의 쌍홍문이라는 바위굴은 금산 38경 중의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 보리암로 665
문의 055-862-6500,6115

ESTJ

빨리빨리! 여행은 성취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다. 무슨 일을 시작하건 이미 마무리까지 예상하고 시작하는 당신!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발휘하며 모험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경험해 본 안전성을 중시한다. ESTJ에겐 여행도 성취의 일부다.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여행자인 당신에겐 남해군의 가장 큰 상설시장이자 대표적인 어시장인 남해 전통시장 추천!

남해전통 시장

남해전통시장은 남해군의 가장 큰 상설시장이자 대표적인 어시장이다. 유년시절 엄마 손 잡고 장에 가던 날의 풍경을 추억할 수 있는 정겨운 여행지! 청정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과 남해의 차가운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마늘과 보물초(남해시금치), 창선고사리, 그리고 남해의 자랑인 남해유자와 보물섬 한우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위치 남해읍 화전로 110
문의 055-864-3592

ESFJ

여행! 남는건 사진이지~

단순하게 하루나 미래의 시간대를 지정하면서 정리하는게 아니라 플랜A, 플랜B, 플랜C 이중삼중 대비하는 계획형 인간! 상상이나 몽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현실적인 꿈을 꾸는 당신! 여행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되돌아오는 비행기 상황까지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하는 광고형 여행자인 당신에겐 특색있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한 독일마을 추천!

독일마을

독일 교민 대표들과 파독 간호사, 광부들이 독일에서 직접 건축자재를 가져와 전통 독일 양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게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이국적 풍광과 서사가 가득한 독일마을은 그 후 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촬영지, 영화 '국제시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와 배경이 되었으며 특색있는 가게와 카페가 즐비하다.

위치 삼동면 독일로 89-7
문의 055-867-8897,055-860-3540

ISTP

현실적이지만 대담한 스타일!

독립적이라서 원하는 게 있다면 굳이 남들과 함께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모험을 좋아하고 적당한 긴장과 스릴을 즐길 줄 알며 예기치 못한 상황도 무난히 해결하는 융통성 있는 여행자인 ISTP에겐 쉽게 접하기 힘든 말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보물섬 승마랜드추천!

보물섬 승마랜드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부터 조선 시기까지 전역이 목장으로 설치되었던 창선도에 조성된 공공 승마장으로, 먹이 주기, 승마 체험에서부터 승마에 대한 전문교육도 가능하다.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주변이 트여있어 말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 배가 될 것이다.

위치 창선면 동부대로 2310
문의 055-867-8809

ISFP

낭만과 예술을 찾아 떠나자!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세우더라도 느긋하게 생각한다. 모든 유형 중에 가장 느긋한 유형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낭만을 곁들인 콜럼버스 형 여행자인 당신!! 독일마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남해 속의 또 다른 이국적 풍경으로 사랑받는 원예예술촌 추천!

원예예술촌

꽃과 나무만큼 깊은 감명을 주는 자연의 설교자가 또 있을까. 꽃과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 우리의 일상마저 정성스레 가꿔주는 듯한 가드너의 애정 어린 손끝을 다양한 정원의 형태로 새롭게 선사해주는 원예예술촌.
그곳은 독일마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남해 속의 또 다른 이국적 풍경으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다.

위치 예술길 39
문의 055-867-4702

ESTP

즉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프로도전러!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고 어떤 계획이 있는 건 또 아니다. 핫플레이스를 좋아하고 외모 면에서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패션 감각도 좋다. 에너지가 가득해 즉흥적으로 여행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은 당신에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남해바다! 상주은모래비치추천!

상주은모래비치

잔잔한 파도와 은빛 백사장,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상주은모래비치는 그 자체로 초록빛 호수를 연상시킨다. 남해읍에서 남쪽으로 21㎞ 떨어진 이곳은 맨발로 닿는 모래의 감촉이 좋아 해마다 여름이면 100만에 달하는 여행객들이 찾는다. 2㎞에 이르는 반달형 백사장, 경사도 완만한데다 수온도 높아 가족들의 피서지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위치 상주면 상주로 17-4
문의 055-860-3371

ESFP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핫플레이스!

매사가 긍정적이며, 사교적인 특징을 가졌다.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며 원활한 소통 또한 좋아한다. 즉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여행자! 딱히 고집하는 여행지는 없고 친구들이 원하는 여행지가 곧 내가 가고 싶은 곳.
같이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스타일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낙관주의자 타입인 당신에겐 행복이 가득한 빛담촌 추천!

빛담촌

한국의 지중해로 불릴 만큼 바다 풍광이 아름답다.
빛담촌내에는 이국적인 펜션들이 자리해 근거리에 위치한 섬이정원과 다랭이마을, 사촌해수욕장 등을 여행하기에 좋다. 빛담촌은 오목조목한 펜션뿐만 아니라 걷기 여행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위치 남면 선구리 1405
문의 1588-3415

INFJ

지금은 조용히 충전이 필요해!

호기심이 많고 지식욕과 학습 욕구가 높으나 주변의 소음이나 큰 목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인보단 상대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이타주의자인 당신! 새로운 사람과 스스럼없이 어울리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INFJ에겐 사계절 다르게 각기 피어나는 꽃을 구경하며 조용히 힐링 할수있는 섬이정원 추천!

섬이정원

한려수도가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층층 계단의 다랑이 논에 나무와 꽃을 심어 조성한 민간 수목원이다. 돌담과 연못, 그리고 아기자기한 멋을 더한 산책로에 유럽식 정원이 만나 남해만의 한국적 매력을 완성했다. 9개의 작은 정원들이 방의 개념으로 분할돼 방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하고 때로는 서로 어울려 색다른 정경을 보여준다.

위치 남면 남면로 1534-110
문의 010-2255-3577

INFP

당신이야 말로 낭만여행가!

호기심이 많으며 융통성도 있는 편이다. 상상력이 가득한 몽상가 타입으로 감정이 발달하고 공감도 잘한다. 전시회에 가고 예술영화를 보고 저자 강연회에 달려가는 일을 즐기나 무엇보다 낭만을 1순위로 두는 여행자인 당신에겐 달빛이 비치는 환상적인 밤바다와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탁 트인 바다가 함께하는 남면해안도로에 위치한 다랭이마을 추천!

다랭이마을

초록의 비탈진 계단 위로 긴 노동의 시간이 멈춰선 듯하다. 45도 경사 비탈에 108개 층층 계단 680여 개의 논이 펼쳐져 있는 다랑이논. 바다에서 시작된 좁고 긴 논들은 계단처럼 이어져 있고, 남해 최고의 산행길로 사랑받는 응봉산과 설흘산을 향하고 있다.

위치 남면 남면로 679번길 21
문의 055-862-3427

ENFJ

이번 여행은 나를 따르라!

추상적, 상징적, 비유적, 관념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으며 일정 계획을 짜는 것도 좋아한다. 호기심과 학구열이 있는 데다가, 활발한 표현을 잘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리더십 또한 가득한 지도자 스타일! 당신에겐 포근한 자연 속에 자리한 역사공원이자 전통 문화 예술 체험이나 리더십 체험도 할 수 있는 이순신순국공원추천!

이순신 순국공원

역사적 지식이나 정보 없이 가더라도 생태가 살아있는 관음포 바다와 광장이 평온한 휴식을 주는 곳! 사적 제232호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일대에 노량해전과 이충무공의 순국을 주제로 호국 광장과 관음포 광장 두 개 구역으로 조성된 공원인 '이순신 공원'은 이순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2019년 11월부터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위치 고현면 차면리 107
문의 055-860-3786

ENFP

사람을 넘어 동물과도 소통하는 당신!

호탕한 웃음소리, 넘치는 리액션. ENFP와 여행하면 가만있어도 신난다. 무계획 여행도 상관없다. 아이디어 뱅크 ENFP는 뭐든 재밌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맛집 탐방 등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좋아한다. 한곳에 가만히 있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당신에겐 양들과 목장의 산책로를 걸으며 힐링과 체험을 한 번에 할수있는 양떼목장 추천!

양떼목장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과 산책로, 숲과 계곡이 있어 시원한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양몰이 개와 귀여운 양,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며 행복한 양치기의 하루를 즐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양모리학교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256-17
상상양떼목장 편백숲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364
양마르뜨언덕 삼동면 금암로 179-45

INTJ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감각, 이성, 감정, 직관 중에서 유달리 직관이 발달한 유형이라서, 어쩐지 만화나 소설 속 주인공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사색에 잠겨 산책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당신에겐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추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한려해상국립공원 북쪽 해발 681m의 금산 동쪽 자락에 있으며,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울창한 편백이 절경을 이룬다. 편백에서 심폐기능 강화와 항균, 이뇨, 거담효과가 뛰어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므로 삼림욕에 매우 좋은 휴양림이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면 보리암이 있고, 정상의 전망대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크고 작은 섬들과 금산 38경의 장관을 내려다볼 수 있다.

위치 삼동면 금암로 658
문의 055-867-7881

INTP

힐링과 재미 둘 다 잡고 싶다면!

사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참석하더라도 딴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혼자만의 캠핑을 즐기는 등 주로 혼자 하는 취미 생활이 많다.
철학, 사색, 아이디어에 목마른 여행자 타입의 당신! 나무에 여러 형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여 나무의 존재 자체로 힐링 모먼트를 안겨주는 완전한 초록의 숲 토피아랜드추천!

토피아랜드

2017년 정식 개관한 이곳은 장대한 편백나무 숲을 벗 삼아 꽝꽝나무, 주목나무 등 나무마다 둘리가 되었다가 뽀로로가 되기도 하는 마술을 보여주는 재미난 토피어리를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시원시원하게 길쭉길쭉 뻗은 500여 그루의 '편백나무 둘레길'이 주는 휴식도 크다. 편백나무 숲 뒤쪽으로는 맨발걷기체험이 가능한 흙길도 있다.

위치 창선면 서부로 270-106
문의 010-5373-5806

ENTP

나의 지식 욕구를 채워줘!

호기심이 많고 지식 욕구도 높다. 마음에 드는 일이나 취미에 올인해서 비싼 돈을 들여 수집을 하거나 고서적을 탐독하기도 한다. 취미 생활을 덕질로 즐기는 경우도 꽤 많다. 지적 여행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서 다녀와서 한 줄의 지식이라도 남는 여행을 선호하는 당신에겐 조선시대 유배지였던 남해의 역사와 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배문학관 추천!

유배문학관

남해유배문학관은 향토역사실, 유배문학실, 유배체험실, 남해유배문학실 등 4개의 전시실과, 다목적강당, 수장고, 유배문학연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외에는 행사마당, 야외조형물, 팔각정, 시비, 산책로 야외전시체험장으로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입구인 로비에는 '유유서가'가 자리해 이곳 남해로 여행 온 사람들이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한다.

위치 남해대로 2745
문의 055-860-8888

ENTJ

그곳이 어디든 나와 함께라면!

ENTJ는 체계적, 조직적, 완벽주의자 타입이다. 동행 중에서 리더격으로 여행을 이끌며, 동행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여 넓은 범위의 여행지도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ENTJ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으니, 남해 걷기 여행길인 바래길을 걸어서 초록으로 물든 이국적인 정취와 국보급 경관을 자랑하는 창선고사리밭길에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남해바래길 창선고사리밭길

고사리밭 길은 동대만 간이역을 지나 동대만 둑을 지난다. 이후 걷는 길은 우리나라 고사리 최대 산지인 창선면 가인리 일대의 구릉지대가 만들어낸 이국적인 정취의 고사리밭 작업로가 걷는 이들을 맞는다. 감탄에 감탄을 얹어도 모자란 국보급 경관에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는 길이다.

위치 창선면 흥선로 704-38
문의 055-860-8658

박승은
유럽현지 컨설팅법인
룩스코 대표

남해는 마치 유럽의 마요르카 섬과 같은 휴양도시와 같은 느낌으로, 세계적인 Artist들이 남해에 거주하면서 전시준비를 하는 Art Residency와 Art Gallery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남해, 그리고 룩셈부르크...

안녕하세요,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룩셈부르크에서 축하드립니다.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에서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룩스코 컨설팅사 박승은 대표입니다. 유럽에 진출하시는 한국의 기술기업들의 진출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 졸업 후, 한국-유럽 Foundation을 통한 장학금을 받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MBA를 하였습니다. 그 후, 미지의 강소국 룩셈부르크에서 2007년부터 거주하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 가요?

룩셈부르크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세계 1위의 GDP의 강대국으로 많은 금융기업들, Amazon, Skype 와 같 은 IT 기업들의 유럽법인을 세우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낙농업, 광산업이 주요 사업이었는데, 추후 금융업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 펀드시장 1위의 세계자본이 모이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레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이후, IT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주요한 IT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쓰는 언어는 룩셈부르크어, 불어, 독일어 3개 국어가 공용어이고, 영어를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다국어 국가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올해 룩셈부르크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남해에 대해 물어보시면, 아직 가본 적은 없는 미지의 도시지만, 독일마을 관련 얘기를 들었을 때, 유럽과 매우 가까운 (유럽을 가장 잘 아는) 도시가 남해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남해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많은 유럽인들이 '한류'로 관광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한국 인데, 남해와 같은 유럽의 청취가 깃든 지역을 방문하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남해지역을 해외에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해에서 '해외 청소년들'을 위한 K-POP Dance Academy 나 한국음식자격증 Course와 같은 유럽인들이 남해에서 한국관련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마을이 있어서 독일어와 영어가 가능한 주민들도 많이 계실 테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해는 마치 유럽의 마요르카 섬과 같은 휴양도시와 같은 느낌으로, 세계적인 Artist들이 남해에 거주하면서 전시준비를 하는 Art Residency와 Art Gallery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휴양도시들에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이 풍요로와지면, 볼거리도 많아집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에 꼭 가서 보려고 합니다.

송경아
유럽현지 일러스트 예술가

어느날, 한국으로 부터 우연히 '남해' 에 관련된 작고 예쁜 책자들을 선물 받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쁜 그림속 남해에 한 순간에 매료되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내 기억속 그곳은, 대부분 바삐 움직이던 도시의 불빛 속에 머물러있다. 그리고 이제, pont adolphe (아돌프 다리)를 경계로, 높낮이가 다른 도시,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나무숲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날이 지면 빌딩 숲 뒷뜰로 여우나 사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 속에 녹아든 아름다운 나라 '룩셈부르크' 에 살면서, 나는 이제서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우연히 '남해'에 관련된 작고 예쁜 책자들을 선물 받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쁜 그림 속 남해에 한순간에 매료되었다. 한국에서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유럽에서 다시 살고 있는 나는, 치열했던 유학 시절을 보냈던 프랑스를 거쳐 지금은 이곳 '룩셈부르크' 에 살고있지만, 나의 지난 소중했던 한국에서의 기억들 속 대부분이 단지 '서울'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바삐 다녀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항상 여유롭지 못했고, 그리워하던 수많은 사람과의 약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탓에 매번 서울을 떠난, 다른 지역으로의 먼 여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쁜 책자 속 남해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유럽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 속 곳곳에 자리 잡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마치,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설렘과 두근거림!

하루 반나절 만에 쉽게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는 유럽 속 작은 중심, 룩셈부르크에서 살고있는 나, 내 주변을 작게 축소해 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책자 속 한국 남해의 유럽 마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꼭 가보고 싶어졌다.

한국의 남해, 그 어딘가에 숨어있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작은 유럽과 그림같이 펼쳐진 자연 풍경 속 그곳을 생각하니 자꾸 조급해지는 마음. 그 예전, 한국을 떠나오기 전, 커다란 유럽 지도를 보고 가슴 두근거렸던 그때의 나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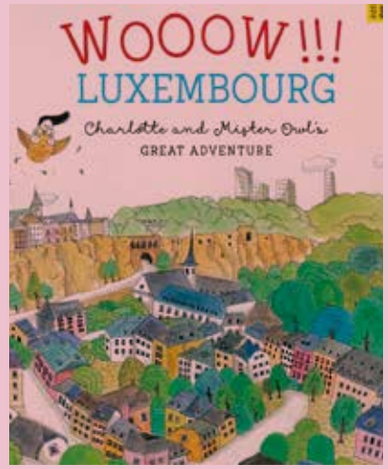
그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예쁜 파란 남해 여권을 남해 지도와 함께 여행 가방 속에 살짝 넣어두었다.

그래, 나의 다음 여행지는 여기다 !

푸른 해변가 근처에서 자전거도 타고, 울창한 소나무 숲도 걷고, 남해 전통시장에 들려 요기도 하며 양떼목장도 들려보고 끝으로 여기저기 유럽 마을들을 돌아보며 예쁜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곳 친구들에게 재밌고 엉뚱한 엽서를 보내야지.

"안녕! 나, 여기 한국의 남해야! 그런데 오늘 독일마을, 프랑스 Giverny, 그리스 Santorini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마을들을 둘러보았어. 커피한잔 얼른 마시고 룩셈부르크 Vianden 을 둘러본 뒤 이제 몽골과 영국, 미국으로 가보려구 ."

상상만해도 신나고 즐거워진다.



Wooow Luxembourg (Éditions Guy Binsfeld) 저자
프랑스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de Nancy 졸업 후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각종 그림전시, 책 작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림작가.

룩셈부르크에서 온 까린느의 남해 방문기

금산 보리암에서

까린느는 룩셈부르크 친구이다.
룩셈부르크는 유럽내륙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제주도 정도의 면적에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이다. 룩셈부르크는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이며, 주변국들에서 오가는 통근 근로자도 많아 길에서는 늘 다양한 언어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어인 룩셈부르크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최소 4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한다.
까린느 또한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4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룩셈부르크에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학 재학시절 스페인으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가 스페인어까지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대학 졸업 후 현재는 현지의 여행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어와 한국어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다국어 구사자 행사인 폴리글롯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전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서울을 방문 후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남해로 왔다. 그녀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여행한다는 특별한 경험에 설레여 보였다. 맨 처음 독일마을을 잠시 구경 후 근처의 한식뷔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채식주의자인 그녀가 그나마 골라먹을수 있는 곳이였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다랭이마을로 향했다. 바다옆 층층이 경사진 다랭이마을을 보며 굉장히 신기해 하였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오직 이곳만의 매력을 찾은 듯했다. 그리고 금산보리암으로 향했다. 특히 금산보리암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전통 사찰과 기암괴석이 어울러진 멋진 풍경은 동양적이라 그녀에겐 너무나 신선한 자극인 듯하였다. 금산보리암에서 바라본 절경을 배경으로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곳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 것으로 담아가고 있었다. 서울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처럼 한복을 입고 찍었더라면 더 멋졌을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웠다. 남해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보성 녹차밭을 방문 후 일본으로 가기 전 마지막 행선지 부산으로 향했다.

행사 참관기 유럽의 날 기념행사

2022년 5월 9일 월요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유럽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화창한 날씨라 행사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유럽의 날은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의 제안이 발표된 1950년 5월 9일을 말한다.
로베르 슈만은 이날 유럽 여러 나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럽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안은 '슈만플랜'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된 기원으로 간주된다.
유럽연합은 이날을 기념하여 유럽의 날로 축하하고 있다. 오늘날 5월 9일은 깃발(emblem)과 환희의 송가(노래)와 함께 유럽연합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날은 유럽 여러 나라의 시민들 간에 친밀감과 일체감을 북돋아 주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24개국과 특별히 초청된 우크라이나가 함께 하였다.

오전 11시에 각국 대사들이 메인 무대에 올라 개막식을 하고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졌다.
서울광장의 한켠에 유럽 나라별 부스를 만들어 유럽 각국의 문화, 언어, 요리 등을 소개하는 친선 교류의 장이였다.
유레일패스 모양을 한 스탬프북에 모든 나라의 부스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받아오면 본부석에서 기념품을 주는 것이 남해여권 스탬프투어와 비슷했다.
각국의 부스를 돌며 나라별 인사말을 배우고, 전통음식과 음료를 한 잔씩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렀다. 그리고 각 부스에서 받은 기념품들로 양손은 무거웠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유럽문화의 인기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날 이외에도 매년 9월 26일에 유럽 언어의 장려를 위한 유럽 언어의 날로도 제정하여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럽의 날 행사나 유럽 언어의 날 행사를 한국 속 유럽인 우리 남해의 독일마을광장이나 유배문학관광장, 이순신순국공원 광장 등에서 개최해본다면 더욱 흥미로울 듯하다.

EPILOGUE

『한국 속 유럽, 남해』라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다.

양창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하야리야 미군부대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국은 무조건 미국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어느 날 동네 동생이 자기 엄마를 따라 국제시장을 다녀오면서

"행님아! 내 오늘 버스 타고 미국 갔다 왔다."
"니 바보가? 미국은 비행기 타고 가야 한다."
"아닌데 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임마 이거 무슨 소리 하노? 꺼지라~"

알고 봤더니 그 동생은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모양을 한 노랑머리의 마네킹을 보고 와서는 미국에 버스 타고 갔다 왔다고 한 것이었다.

그 당시 외국은 오직 미국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불현듯 유럽이 찾아왔다. 어린 시절 매달 사보던 소년중앙 잡지에 연재되고 있던 「허풍선이 3총사의 세계일주」란 만화를 보며 3총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보고 외국은 미국 말고도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유럽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도서실에서 발견한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은 나를 유럽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말았다.

이웃 나라라곤 너무나 거대한 공산국가인 중국과 가까이하기엔 마음적으로 너무나 먼 섬나라 일본밖에는 없는 그마저도 분단되어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자란 나에게 고만고만한 다양한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유럽은 너무나 매력적인 공간이였다. 여유로운 생활과 아름다운 건축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문화는 나를 유럽 덕후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중학교 시절 예쁜 여자 사진 때문에 구입했던 「핫윈드」라는 잡지에서 당시로서는 생소한 대학생 유럽 배낭여행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후 단행본으로 출판된 「배낭 하나 달랑 메고」라는 책을 사서 읽고 더욱 유럽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야간열차를 타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기차역에 도착하면 문화와 언어 등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설레게 만들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서 유럽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유럽 배낭여행도 가보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학한 교수님들로부터 여유로운 유럽 사회와 다양한 문화 등을 이야기 들으며 단순한 여행지로서만 아니라 그들의 제도와 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원서를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H군으로 접수하러 가던 길에 누군가 H군에 눈이 많이 온다는 말에 군대생활을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선상에서 보낸 나로선 군대 시절의 눈 지옥을 공무원 생활에서까지 맛보고 싶지

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주제 (남해에서 유럽을 만나다) 발표

않은 생각에 내 고향 부산과 같이 바다가 있고, 독일마을이 있는 남해군으로 접수를 하고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남해군 공무원으로 남해에서 살아오면서 늘 남해가 너무나 유럽적이라고 느껴왔고, 남해에 유럽의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오다가 지난해 7월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으로 파견발령이 되어 한국 속 유럽, 남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속 유럽, 남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해군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렇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가장 적은 투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럽이란 콘텐츠이다.
이미 남해는 독일마을을 비롯한 많은 유럽적인 관광명소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란 콘텐츠 소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고급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소재로 그만큼 리스크가 적은 것도 우리가 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관광문화재단에 근무하게 된 이곳의 1년이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고 소중한 시간이다. 공직생활 20년 만에 나의 전공이자 좋아하는 주제인 유럽을 활용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두근두근거린다.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남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 속 유럽이라면 누구나 다들 남해를 떠올리게끔 되었으면 한다.
유럽이란 콘텐츠는 남해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유니크한 매력이 될 것이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파견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그동안의 노력과 생각을 모아 책자를 발간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발 행 일 2022년 6월
발 행 처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기획편집 재단 경영지원팀
주　　소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연 락 처 055-860-3689

www.namhaetour.org
www.namhae.go.kr/tour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남해로 오시다

MAGAZINE

Namhae & Europe

남해에서 유럽을 만나다 「남해 & 유럽」

남해군 NAMHAE-GUN

남해관광문화재단 NAMHAE FOUNDATION FOR TOURISM & CULTURE